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幕 禮

얼굴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헤어 커트 스타일 중심으로 -

A Stud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air Styles
depending on Facial Types
- Focused on Hair Cut Styles -

2006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海 英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幕 禮

얼굴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헤어 커트 스타일 중심으로 -

A Stud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air Styles
depending on Facial Types
- Focused on Hair Cut Styles -

이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6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海 英

金海英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6年 12月

審査委員長 유 지 연 

審査委員 김 진 수 

審査委員 김 막 례 

국문초록

21세기에 이른 지금은 시각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중시되어지고,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스타일의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용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학계 또한 최근 동안 비약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다른 분야의 조형 활동과 달리 헤어디자인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디자이너의 손과 창의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헤어커트 스타일을 연출하여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용관련 업계의 디자인 개발 및 판매 촉진에 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련 서적과 논문, 패션전문잡지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얼굴의 조형적 특성 및 얼굴 유형별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동양과 서양의 얼굴유형 분류방법에 대한 고찰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연관성으로 헤어커트 형태 기본요소, 헤어커트 스타일의 분류, 헤어스타일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얼굴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으로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얼굴유형과 헤어 커트 스타일의 구성요소와 디자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얼굴유형에 어울리는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제시결과 현대 헤어 미용이 조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얼굴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디테일한 선의 변화와 질감 등의 적절한 조화는 전체적인 스타일의 이미지와 개성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얼굴의 형태와 두상 골격구조에 따라 디자인 요소의 적용방법이 달라지면 이미지 효과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고, 얼굴의 형태와 두상의 골격구조 이미지 등은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모발이라는 소재에 조형성과 구성미를 지닌 형태적 구성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얼굴형과 두상의 골격구조에 대한 조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디자인 요소 어느 한 가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은 매우 다차원적이다. 헤어스타일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이므로 먼저 각 요소가 형성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자인 구상에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이미지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개개인의 얼굴형과 두상의 골격구조는 선천적인 외모조건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잘 활용시킨다면 외모가 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해진 헤어스타일은 없고, 어떤 헤어스타일이든지 자신의 얼굴형에 어울리도록 조정만 한다면 과감히 자기 변신을 시도해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털패션감각에서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무척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얼굴유형 분류를 동양철학적 관점과 서양의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와, 직접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제작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얼굴유형은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관상학적인 삼형질론과 우리나라의 체형인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기운이 적용된 다섯 가지 얼굴형에 효과적인 헤어스타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형 얼굴 헤어커트를 할 때는 타원형의 얼굴에 근접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이때 전체적인 스타일은 클래식하고 현대적인 것이 좋다. 앞머리의 라인은 사선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하여 탑을 기점으로 모발길이에 단차를 주고 질감을 강하게 넣어 볼륨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란형 얼굴은 같은 계란형이라도 이목구비의 차이와 턱이 가늘다거나 이마를 드러내고 있다든지 각각 다소특징이 있으므로 그것을 살려서 모발의 길이와 디자인을 생각하고 매력의 포인트를 주어 신선함을 주도록 한다.

역삼각형 얼굴은 이마를 감출 수 있는 길이를 선택하고 질감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컬러의 대비를 이용한 분할로 하악골을 드러내어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얼굴형이 명확히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은 금물인데 헤어스타일의 포인트는 턱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컬과 웨이브로 부드러움을 더하도록 한다.

사각형 얼굴은 각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카 스포츠형의 스타일을 피하는 대신, 사선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유도하고 비대칭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머리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안쪽말리로 하여 사이드에 양감을 내주지 말고 턱을 싸잡아 주듯 꾸민다. 바깥쪽으로 빠치면 각진 것이 강조되므로 주의한다.

긴 얼굴은 비교적 얼굴윤곽이 예쁜 편이나 다소 지루해 보이는 인상으로 볼쪽으로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가로선이 강조되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긴 얼굴형에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은 단발형으로 앞머리를 잘라서 내려주면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헤어스타일이 얼굴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함으로써 신체적 외모에서 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II. 얼굴유형별 요소	4
1. 얼굴의 조형적 특성	4
2. 얼굴형의 분류	14
3. 동서양의 얼굴유형 분석 차이	24
III.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	32
1. 헤어스타일의 디자인 요소	32
2. 헤어컷 스타일의 종류	46
3. 헤어컷 형태 기본 요소	54
IV. 얼굴 유형에 따른 헤어컷 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	58
1. 얼굴유형과 헤어컷 스타일의 상관관계	58
2. 얼굴유형과 헤어 컷 스타일의 구성요소와 디자인 효과	66
V.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작품 제작	70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70
2. 얼굴형태에 따른 작품제작	70
VI. 결 론	83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83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목 차

<표 4- 1>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	65
----------------------------	----

그림 목차

[그림 2- 1] 이마 윤곽선의 굴절점	6
[그림 2- 2] 부처상의 살상투	8
[그림 2- 3] 아폴로의 이마를 강조한 헤어스타일	8
[그림 2- 4] 두정점을 강조한 익선관	9
[그림 2- 5] 이마를 강조한 족두리	9
[그림 2- 6] 한국적인 얼굴형	12
[그림 2- 7] 젊은층이 선호하는 얼굴형	12
[그림 2- 8] 황수정	14
[그림 2- 9] 채시라	14
[그림 2-10] 계측점	15
[그림 2-11] Kamata식 안면얼굴 유형	19
[그림 2-12] 얼굴유형 분류기준	21
[그림 2-13] 얼굴의 황금분할(정면)	23
[그림 2-14] 얼굴의 황금분할(측면)	23
[그림 2-15] 오행에 따른 얼굴유형 분류	31
[그림 3- 1] Dire 97S/S, collection	35
[그림 3- 2] Garcons 01S/S, collection	35
[그림 3- 3] Yamamoto,01F/W, firstview	35
[그림 3- 4] Yamamoto 96S/S, collection	36
[그림 3- 5] Galiano 97F/W, collection	36
[그림 3- 6] Gaultier 01S/S collection	36
[그림 3- 7] Lacroix 95S/S, collection	37

[그림 3- 8] Miyake 00S/S, collection	37
[그림 3- 9] Westwood 03S/S, collection	37
[그림 3-10] McQueen 95S/S, collection	38
[그림 3-11] Moschino 04S/S, collection	38
[그림 3-12] Gigli 96S/S collection	39
[그림 3-13] McQueen 97S/S, collection	39
[그림 3-14] Lacroix 01S/S, collection	39
[그림 3-15] McQueen 96S/S, collection	40
[그림 3-16] Garcons 04F/W, style	40
[그림 3-17] Miyake 02S/S, collezioni	41
[그림 3-18] Galiano 04F/W, style	41
[그림 3-19] Moschino 97S/S, collection	43
[그림 3-20] Dior 04S/S, style	43
[그림 3-21] Dior 01S/S, style	45
[그림 3-22] McQueen 96S/S, style	45
[그림 3-23] Galiano 04S/S, style	45
[그림 3-24] Galiano 01S/S, style	45
[그림 3-25] 원랭스 스타일과 측면구조	47
[그림 3-26] 원랭스커트 라인	49
[그림 3-27] 그래쥬에이션 스타일과 측면구조	50
[그림 3-28] 로우 그래쥬에이션 : 서브섹션 각도(낮을 경우)	51
[그림 3-29] 미디움 그래쥬에이션 : 서브섹션 각도(중간일 경우)	51
[그림 3-30] 하이 그래쥬에이션 : 서스섹션 각도(높을 경우)	52
[그림 3-31] 인크리징 레이어 스타일과 측면구조	53
[그림 3-32] 베이직 레이어 스타일과 측면구조	53
[그림 3-33] 경사커트라인의 종류	55
[그림 3-34] 커트를 위한 패널의 각도	56
[그림 3-35] 두상의 포인트와 섹션	56

[그림 3-36] 두부전체로 본 온 더 베이스의 도해도	57
[그림 4- 1] 앞면의 얼굴형	59
[그림 4- 2] 측면에서의 얼굴형	60
[그림 4- 3] 측면에서의 본 두상 윤곽	61
[그림 4- 4] 바깥쪽 형과 안쪽 형	67
[그림 4- 5]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선의 기준	68
[그림 4- 6]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길이의 기준	69
[그림 5- 1] 계란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71
[그림 5- 2] 계란형 얼굴의 시술 후(정면)사진	72
[그림 5- 3] 계란형 얼굴의 시술 후(측면)사진	72
[그림 5- 4] 원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73
[그림 5- 5] 원형 얼굴형의 시술 후 사진(정면)	74
[그림 5- 6] 원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74
[그림 5- 7] 긴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75
[그림 5- 8] 긴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75
[그림 5- 9] 긴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75
[그림 5-10] 사각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77
[그림 5-11] 사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77
[그림 5-12] 사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77
[그림 5-13] 삼각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79
[그림 5-14] 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79
[그림 5-15] 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79
[그림 5-16] 역삼각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80
[그림 5-17] 역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81
[그림 5-18] 역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81
[그림 5-19] 마름모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82
[그림 5-20] 마름모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82
[그림 5-21] 마름모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8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 다양화, 전문화로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용은 과학에 기초를 둔 종합예술로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어지는 전문화 방향에 부흥하여 여러 분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용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미적 관심도 점점 높아짐에 따라, 단지 예전처럼 유행하는 스타일을 시술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얼굴형에 맞는 머리모양으로 추구해 가고 있다.

자신의 외적 이미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요소들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 얼굴은 개인 생김새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며 얼굴인상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전체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¹⁾

따라서 현대인은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개성 있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 하고 싶어 한다. 헤어의 길이, 색상, 스타일, 가발 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신체의 일부분으로 물리적이며 개인적인 대상인 동시에 자아와 집단 정체감의 표식, 그리고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형태로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Hassin, R. & Trope, Y.(2000). Fashion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 78.

특히 인상 형성에 있어 헤어스타일은 이미지 형성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더 감성적인 욕구충족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행과 고객의 감성을 보다 빨리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에서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로 완성되며, 헤어스타일의 기본 목적은 얼굴에 의하여 얼굴을 근거로 시작하며,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한국에서의 미용은 결국 동양인, 그 중에서 한국인, 그 안에 존재하는 얼굴형 속에서 최대의 미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시술을 목지하게 된다. 그런데 얼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모두 다른 유전자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개인을 결정하는 형태적인 요소, 이를테면 얼굴형, 피부색, 두상, 어깨 등 체형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세 가지(형태·질감·색채) 구성요소가 함께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디자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헤어스타일 이미지가 연구되어야 하나 요소간 결합에 의한 변수가 무수히 많으므로 한 개의 독립변인으로 헤어스타일 유형 또는 색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헤어디자인 요소 내의 변인들이 체계적으로 조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된 실험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비교·고찰하며, 나아가 얼굴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헤어 커트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토대로 실제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방법은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련 서적과 논문, 패션전문잡지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얼굴유형별 요소와의 관계로 얼굴의 조형적 특성 및 얼굴 유형별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연관성으로 헤어커트 형태 기본요소, 헤어커트 스타일의 분류, 헤어스타일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얼굴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으로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얼굴유형과 헤어 커트 스타일의 구성요소와 디자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얼굴유형에 어울리는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을 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II. 얼굴유형별 요소

1. 얼굴의 조형적 특성

1) 얼굴의 정의

얼굴에서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얼굴의 이목구비일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의 조형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얼굴의 조형성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제이다.²⁾

사람의 얼굴은 안면(顔面)이라고도 하며, 2개의 눈썹을 따라 협골궁(顴骨弓)에서 외이공(外耳孔)을 지나 하악골(下顎骨)의 아랫 가장자리를 두르는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해부학적으로는 안면두개³⁾를 덮는 피부부분을 말하며 눈, 코, 입 등이 있다.⁴⁾

얼굴을 구분하면 안와부(眼窩部), 안와하부(眼窩下部), 비부(鼻部), 협부(顴部), 협골부(顴骨部), 구부, 하악부(下顎部), 이하선교부(耳下腺咬部)가 되는

2) 김애경, 이정희(2005),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권 제6호, p. 651.

3) 안면두개는 구개골-口蓋骨, 협골-顴骨-,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설골-舌骨로 이루어진다.

4) 안현경(2006). 헤어스타일 연출에 관한 연구-수도권 20대 여성의 얼굴형과 헤어패션 감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이마의 머리털이 난 언저리의 개인차가 심하여 이마를 경계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은 이마를 제외한 안면두 개를 덮은 피부부분을 말한다.⁵⁾

두경부(頭頸部)는 사람의 특성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서 머리부분의 뼈는 15종 23개나 되는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관으로 보아 짐작하기 보다는 훨씬 수가 많고 복잡하다.

이는 외부형태에 직접 나타나는 뼈는 두정골, 전두골, 후두골, 측두골, 비골, 관골, 상악골, 하악골 8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뼈들이 서로 모양이 다르면서도 봉합(縫合)이라는 특수한 관절구조로써 성장 완결되기 때문에 그 복잡성의 총화가 곧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개개인의 얼굴(머리)모양이 모두 다르게 되는 것이다.⁶⁾

2) 얼굴의 조형적 특성

사람의 사회생활은 얼굴과 얼굴의 관계라고 하여 어떤 해부학자는 ‘얼굴은 사회적 관절면’이라고까지 비유한 적이 있다. 서로의 안면인지를 떠나서 사람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얼굴구분의 단서가 서로간의 형태차이에 있다면 이 얼굴의 형태는 전적으로 얼굴에 내재하고 있는 두개골의 구조화 모양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두개골은 다른 뼈와 마찬가지로 일생동안 비교적 모양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5) 안현경, 상계논문,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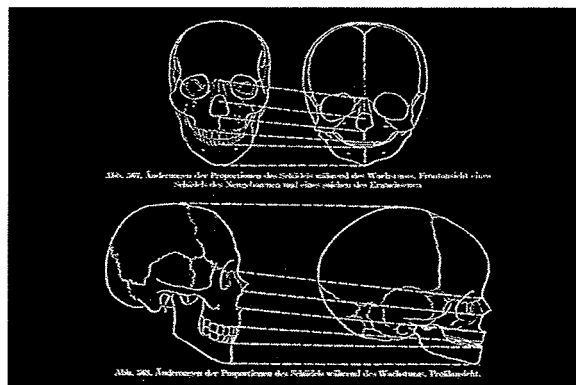
6) 조용진(1989), 우리몸과 미술문화, 미술교육사, p.37.

두개골은 여러 개의 뼈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뼈들은 각기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발견하든지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까지도 추정할 수 있다.

개성이 있는 만큼 전체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용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조용진(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두개골에 따른 얼굴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⁷⁾

전두골을 보면 좌우 전두용기가 있어서 이마 윤곽선의 굴절점이 된다. 이 전두용기 간의 폭과 높이에 남녀 성차, 연령차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넓기 때문에 이마가 넓고 시원하게 보이며 어렸을 때는 얼굴 부분에 비하여 이마 부분이 넓고 시원하게 보이며 어렸을 때는 얼굴 부분에 비하여 이마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비율상 전두용기간의 폭이 넓고 눈썹에서 높게 위치한다.[그림 2-1]



[그림 2-1] 이마 윤곽선의 굴절점

조용진(1989), 우리몸과 미술문화, p.27

7) 조용진(1989), 상계서, pp. 33-39.

그러나 남자는 이마가 뒤로 넘어가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았을 때의 윤곽선의 굴절은 크지 않고 여자에게서는 뚜렷하다, 그래서 여자의 이마가 튀어나와 보인다. 어린아이들이 이마가 돌출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또 전두골에 부속되어 있는 형태적으로 중요한 곳은 미간(眉間)과 상안와연(上眼窩緣)이다.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이 부분이 크게 돌출해 있다. 어린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 돌출 정도가 약한데, 이것을 우리는 유약한 인상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이 부분이 크고 돌출해 있으면 야성적 인간이 된다.

전두골의 좌우에는 측두선이 있어서 이마의 앞면 넓이를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측면의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측두선도 어린이보다 어른이 강하고 여자보다 남자에게 뚜렷하며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뚜렷하다.

두정골은 좌우 두개로 이루어져 두개골의 천장이 된다. 전두골은 어렸을 때는 둘로 나뉘어 각기 골화하다가 하나로 융합된 것이지만 두정골은 계속 나뉘어져서 봉합(縫合: Suture)상태로 결합되어 있다. 이 뼈도 중앙에 하나씩 융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두정융기(Parietal eminence)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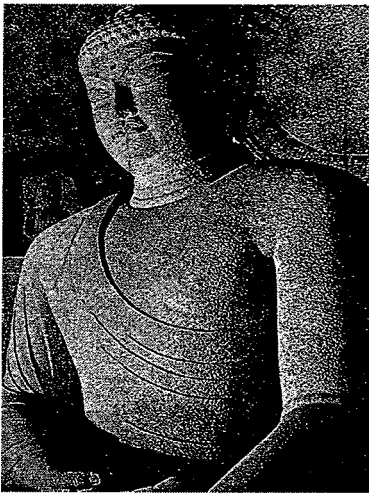
두정융기의 돌출 정도에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돌출하여 있고 노인이 되면 반대로 융기가 낮아지고 두정부가 돌출하게 된다.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묶어 줄 때 좌우 융기부에 매어 주면 귀여워 보이고, 약혼식날 머리를 올린 누나가 갑자기 성숙해 보이는 것은 모두 어린이의 골학적 특징을 강조하였는가, 노인의 특징을 강조하였는가에 의한 것이

다. 머리를 좌우에 묶어 두정용기를 강조하면 어린이의 특징을 드러내므로 우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불러 일으켜서 귀여운 감정을 갖게 되고, 두정점을 강조하면 노인의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여 드러내 놓은 것이 되므로 성숙하고 원숙하게 보이는 것이다.

부처상을 보면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깨달은 자, 즉 지적인 자가 된 모습에 정수리가 돌출한 표현을 인도사람들이 생각해 내었는지도 모른다.

아폴로상을 보면 이마를 강조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대관식 때의 나폴레옹은 월계관을 역시 이마가 도출해 보이도록 쓰고 있으며 경찰이나 장교의 모자도 한결같이 이마가 높고 돌출되어 보이도록 한 것은 모두 젊음을 숭상하는 심리에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 부처상의 살상투
조용진(1989), 상계서, p.30



[그림 2-3] 아폴로의 이마를 강조한 헤어스타일
조용진(1989), 상계서, p.31

동양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머리를 뺏아 내렸던 충각이 머리를 틀어올려 상투를 틀고 관리와 임금이 익선관을 쓰고 장군의 투구 역시 정수리가 높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노인적인 것을 존중하는 심리에서 노인적 행태를 모방한 것이 된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여자의 경우는 다르다. 족두리는 아폴로처럼 이마위에 올려놓고 궁중의 큰머리, 어여머리, 첩지 등 모두 1마를 강조하는 모양이다.



[그림 2-4] 두정점을 강조한 익선관
조용진(1989), 상계서, p.31



[그림 2-5] 이마를 강조한 족두리
조용진(1989), 상계서, p.31

이런 예들을 보면 유용성에 따라 인체 또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옛날에는 뒷머리가 납작하여 얼굴모양까지 넓적한 형을 잘 생긴 것으로 보았는데 요즘은 반대로 얼굴이 좁은 앞뒤 쌍구를 멋지다고 보고 있다.

넓적한 얼굴을 보는 것은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다. 좁은 얼굴을 좋게 보는 것은 서양에서도 최근 200년간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동일한 문화현상도 바로 안면의 보다 유용한 형태 때문이라는 점이다.

3) 한국인의 얼굴 특징

사람 얼굴의 인상은 눈 코 입술 등의 부분적인 형에서 받는 이미지와 함께 그들이 얼굴 안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비율이 차지하는가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바뀐다.⁸⁾

얼굴의 골격은 얼굴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얼굴의 윤곽 크기 입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골격은 연령 성별 인종 등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지방은 얼굴의 살을 만들고 근육은 표정을 만들며 피부 결에도 영향을 준다. 피부는 피부 상태나 색은 인종 연령 성별 정신적 상태를 포함한 건강상태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달리 한다.

얼굴의 개성을 파악하는 경우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 표준 프로포션인데 프로포션이란 ‘균형’으로 신체에서 말하는 두상의 크기와 신장의 조화는 얼굴에서 말하는 눈과 코와 입 등의 얼굴전체에 대한 균형을 의미한다. 얼굴 균형의 차가 곧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을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사고 살아가는 법이 확실히 나타나 있다.

인상학적으로 나쁜 상의 얼굴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 삶의 태도를 바꾸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얼굴의 상까지 바뀌어 질수 있고 연령과 선천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관상이란 살아 있는 얼굴이기에 마음가짐에 따라 늘 변한다고 볼 수 가 있다.

꼭 미인이 아니더라도 예쁜 마음은 얼굴을 좋은 관상으로 이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미인이더라도 운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8) 최혜정(2005), 얼굴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한국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을 대하는 주변 시선의 변화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여성의 미인상이 변하고 있다. 한국인의 얼굴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보면 첫째 지혜롭고 관조적이며 고집스럽다. 둘째 착하고 이타적이고 꾸밈새 없으며 밝다. 셋째 끈질긴 인상을 준다.

한국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특성들은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한 면도 적지 않으나 크게는 역사·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한국인의 심성을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기후나 풍토에 따른 식생활 환경의 영향으로 얼굴은 항상 변화해 왔고 얼굴이 변하고 있는 만큼 미인관도 변하고 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미인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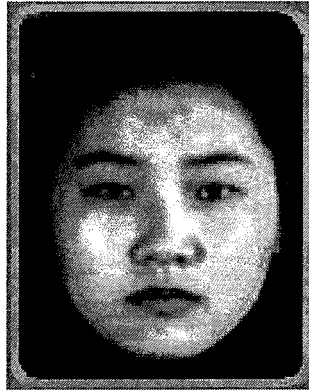
고구려 시대의 미인상은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여인의 얼굴로 보아 대체로 풍만하고 눈썹이 초승달 같으며 눈은 은행 알과 비슷하고 코는 솟고 입술이 작은형을 미인으로 보았으며 삼국시대에는 완벽한 외모를 표현하는 대목에서 거의 빠짐없이 ‘살결이 곱고 탐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을 미루어 피부미인을 으뜸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작고 통통하며 눈과 코 또한 대체로 작은 이미지의 연인을 미인형으로 보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미인도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쌍꺼풀이 없는 가는 눈 작은 눈동자 작은 코 작은 입에 중안이 오목한 얼굴형의 앳된 모습에 다소곳한 인상의 여인을 미인”⁹⁾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인이 생각하는 미인관은 쌍꺼풀이 진 큰 눈에 코와 입이 크고 광대뼈 있는 중안이 발달한 형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띠고

9) 국민 민속 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9), p. 142.

있다.



[그림 2-6] 한국적인 얼굴형 [그림 2-7] 젊은층이 선호하는 얼굴형

조용진(2003), <http://www.burimhong.pe.kr>.

한국 사람의 얼굴 특징을 체질인류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두상 뼈 높이 나 얼굴뼈 코와 눈 눈코주름 및 속 쌍꺼풀과 털 광대뼈가 주요대상이 된다. 그 가운데 눈코주름 속 쌍꺼풀 및 광대뼈의 발달은 “한국 사람의 조상이 북쪽 추운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나타내 준다”¹⁰⁾ 고 풀이 할 수 있다. 키는 중키이며 얼굴이 옆으로 퍼진 점과 더불어 속 쌍꺼풀이 생기고 광대뼈가 높아진 것은 눈동자와 콧속을 따뜻하게 보온하고 몸의 열량을 보존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얼굴이 최근 급격이 변하고 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미인관을 보면 서구적인 미를 가진 쌍꺼풀이 진 큰 눈에 코와 입이 크고 광대뼈 있는 중안이 발달한 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띄는 형이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얼굴의 형태를 살펴보면 현대의 미인상은 1 : 1.5의 좁은 얼굴로서 과거 한국적 얼굴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서양에서의

10) 김필레(2004).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8.

비너스 같은 서구적 이미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추세이다. 현재 “한국인의 얼굴의 세로 길이는 186.34mm로 일제시대 때보다 길어”¹¹⁾졌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인의 얼굴은 세로 길이가 변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래 의미의 인상에서 변화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커졌다 해도 크기의 변화만으로 인상에서 변화가 오게 되는데 만일 각 부분의 관계 비까지 달라졌다면 이는 한국인 얼굴이 인상과 실측 지수 양면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된다. 특히 한국인 얼굴의 실측 길이는 1986년의 계측지보다 1991년의 계측지가 길어져서 한국인의 얼굴 길이가 최근 5년간에 걸쳐 더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눈에 익숙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낯선 것은 거부한다. 미스코리아의 얼굴 계측에서도 보면 이들이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서구적 특징의 용모를 가졌으면서도 얼굴길이의 계측 수치는 한국 젊은 여자들의 평균치인 186.34mm에 부합하는 186.00mm를 보이고 있어서 눈에 익숙한 한국인의 평균적 요소가 미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새로 등장한 미인형에 시중 만화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닮은 얼굴이 짧고 요철이 분명하며 눈이 동그랗고 입이 작은 인물이 나타난다는 점도 미인관 형성에 있어서 시각적 경로의 한 방증이 된다.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선호율이 높은 이 새로운 미인형은 그들이 접한 시각적인 경로 즉 만화보기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 있어 나타나는 미인관의 특색을 요약해 보면 국제화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서구인의 용모에 의하여 뇌 속에 형성되는 시각적 평

11) 국민 민속 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1), p. 146.

균 얼굴형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서구인 용모 선망의 양상을 띄고 있고 서구적 물질문명의 가치 지향과 물질적 풍요에 따른 낭만적 감성적 미인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 황수정, 전통적 미인상, 북방계 미인형 [그림 2-9] 채시라, 현대적 미인상, 남방계 미인형
조용진(2005), <http://www.burimhong.pe.kr>.

2. 얼굴형의 분류

얼굴형을 분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성형외과학, 복식학, 미용학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용학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얼굴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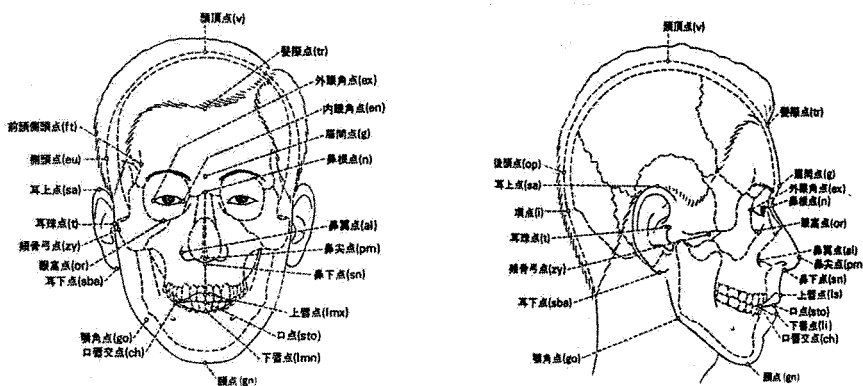
1) 얼굴형 분류 방법

생체의 인류학적 고찰에 있어서는 대개 관찰에 의한 생체관찰방법과 계측에 의한 생체계측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인류학 초기에는 생체관찰의 방

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체계측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¹²⁾

생체계측은 Martin(1928)에 의해 인류학에 학문적 수립을 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생체계측에 관한 연구보고를 해오고 있다. 마틴법에서는 두부, 안면에 관해서 33종류, 일반체부에 관해서는 31종류의 계측점이 설정되고 각각 자세하게 계측점의 정의와 구하는 법이 정해져 있다. 계측점은 [그림 2-10]과 같다. 안면의 계측점으로 직선거리와 투영거리를 측정한다.

계측기구는 신장계(anthropometer), 측각계(spreading calipers), 권척(measuring tape) 등이 있지만 각각의 계측항목마다 어느 계측기구를 쓰는가가 정해져 있다. 마틴법에서는 일반체부에 약 130종, 안면두부에 약 70종의 계측항목이 있으며 각각 고유의 항목번호를 붙여서 정의가 정해져 있다



[그림 2-10] 계측점

안현경(2006), 전계논문, p. 12.

12) 안현경(2006), 전계논문, p.9.

하지만 마틴법은 주경, 각도, 체중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점을 선상으로 연결하는 일차원계측이다. 따라서 굴곡이나 곡면의 형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안면 등의 미용성형외과에서는 꼭 충분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입체계측이 필요한데, 1970년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무아레법이다. 무아레법은 발과 같은 격자(格子)와 광원(光)원과 보통 카메라가 있으면 인체의 표현에 간단하게 등고선을 찍어내고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아레 사진은 TV카메라로 무아레 사진의 고(高)를 잡아서 A/D컨버터에 의해서 디지털화하고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입력시켜 정량적으로 분석, 연산한다.¹³⁾

2) 얼굴형 분류

얼굴형의 분류는 생체관찰과 계측방법이 사용된다. 생체관찰은 전체적인 얼굴윤곽을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계측방법은 얼굴을 측정하고, 통계치를 이용하여 4-7가지로 얼굴형을 분류하는 것이다.¹⁴⁾

이상적인 얼굴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용학계에서는 진행된 얼굴형의 분류에 대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혜성(2003)은 여성의 얼굴유형을 긴 얼굴, 둥근얼굴, 사각형 얼굴, 역삼각형 얼굴, 삼각형 얼굴, 다이아몬드형 얼굴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¹⁵⁾ 피부미용과 헤어스타일을 위한 얼굴분석을 목적으로 했던 신지현

13) 백세민(1993), 미용성형외과학, 서울:군자출판사, pp. 47-60.

14) 안현경(2006), 전계논문, p. 21.

15) 이혜성(2003),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현문사, pp.132-137.

(1999)도 얼굴형을 달걀형, 사각형, 원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장방형으로 분류하였다.¹⁶⁾ 또한 김현희(2002)의 연구에서는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긴형, 사각형으로 분류하여 얼굴 형태별 특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테크닉을 제시하고 있다.¹⁷⁾

김진숙(2003)은 여대생 얼굴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얼굴의 69개 계측항목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원형, 계란형, 사각형, 하트형의 4형태로 여대생의 얼굴이 구분된다고 하였다.¹⁸⁾ 그리고 김미정(2004)은 남자대학생의 얼굴항목 15개를 계측하고 항목별 요인분석을 하여 긴형, 사각형, 둥근형, 계란형 얼굴로 얼굴이 분류된다고 하였다.¹⁹⁾

송미영, 박옥련(2004)의 연구에서도 김미정과 거의 같은 항목으로 얼굴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얼굴 유형 분류에 기준이 되는 계측항목은 얼굴폭을 제외한 모든 계측치에서 얼굴 유형별 차이가 $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턱끝각, 이마각, 얼굴길이, 얼굴폭, 턱결절간 직선거리, 얼굴길이, 상안부길이, 하악간폭 등이 얼굴 유형의 주 분류기준이 된다고 하였다.[그림 2-8] 참조

또한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는 얼굴형을 빈도순으로 분류하여 계란형, 원형, 긴형, 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로 정리하였다.²⁰⁾

또한 김애경, 이경희(2005)의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120명의 정면얼굴사진을

16) 신지현(1999), 신 미용학개론, 서울:수문사, pp. 342-349.

17) 김현희(2002), 인상과 관련한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김진숙(2003), 여대생 얼굴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16.

19) 김미정(2004), 남자대학생의 얼굴계측에 따른 유형별 헤어 컷 디자인 연구, 동명정보대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송미영, 박옥련(2004), 20대 여성의 얼굴유형 분류 및 형태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1), p.88.

수집하여 얼굴형태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계측항목간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얼굴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하였다.²¹⁾

계측항목은 얼굴세로길이, 이마세로길이, 코길이, 입술두께, 턱길이, 눈세로길이, 눈썹세로길이, 눈두덩길이, 얼굴가로길이, 눈썹길이, 눈길이, 코너비, 입술길이, 눈썹사이길이, 눈사이길이, 눈기준가로길이, 광대뼈기준가로길이, 입기준가로길이, 이마가로길이의 총 19개 항목이다.

연구의 결과 얼굴의 형태와 윤곽, 코의 형태, 미간의 상태 등이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집화된 얼굴의 유형으로는 5개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군집1은 이마는 넓고 길며, 턱선은 가름하면서 짧고, 볼이 통통한 편으로 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서 현대적인 얼굴, 군집 2는 이마와 턱선이 가름하면서 긴편으로 고전적인 성숙한 이미지로서 성숙한 얼굴, 군집3은 이마폭이 좁고 턱선이 가름하고 눈썹이 상승형으로 도발적인 이미지로서 도발적인 얼굴, 군집4는 이마와 턱선이 각형으로 지적인 이미지로서 지적인 얼굴, 이마와 턱선이 가름하고 광대뼈가 돌출된 형태로 세련되고 귀여운 이미지서 귀여운 얼굴로 준집화 하였다.

즉, 미용학계에서는 얼굴 유형 분석은 얼굴의 계측항목을 설정하여 이것을 실측하고 요인분석 혹은 군집분석을 하여 얼굴의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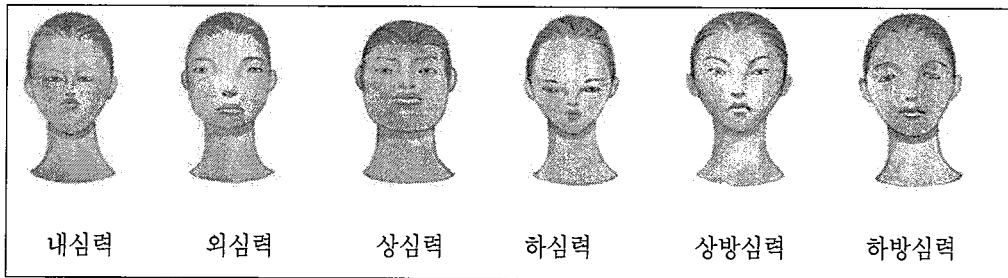
또한 김경순(1996)은 얼굴형 수정을 위한 메이크업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얼굴형을 계란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의 7 유형으로 분류하였고²²⁾, 양숙희 외 5인(2001)은 계란형, 둥근형, 삼각형의 4

21) 김애경, 이경희(2005), 전개논문,

22) 김경순(1996), Make up, 서울:청구문화사, pp.68-75.

가지로 분류하였다.²³⁾

외국의 연구에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얼굴의 유형을 연구한 방법 중에 Kamata식 안면분석은 얼굴에 실려 있는 힘을 체크함으로써 6가지 형태로 얼굴을 분석하였다. 즉, 얼굴에 힘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해서 얼굴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마에 집중된 힘은 주름이나 뺨로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고 눈에 집중된 힘은 두통을 일으키고 코나 입에 집중된 힘은 호흡을 얇게 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눈, 코, 입의 위치에 따라 내심력(內心力)얼굴, 외심력(外心力)얼굴, 상심력(上心力)얼굴, 하심력(下心力)얼굴, 상방심력(上方心力)얼굴, 하방심력(下方心力)얼굴로 분류하였다.²⁴⁾[그림 2-11]



[그림 2-11] Kamata식 안면얼굴 유형

www.kamata-juku.co.jp

또한 Davis(1980)는 얼굴형을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긴형의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시각적 특징을 설명하였다.²⁵⁾ 그리고 Tate(1991)는 얼굴형을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²⁶⁾

23) 양숙희, 남철현, 김성우, 박형심, 남현주, 이명옥(2001),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 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6.

24) www.kamata-juku.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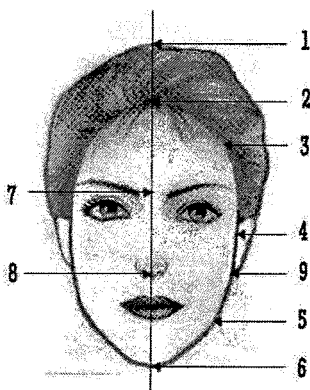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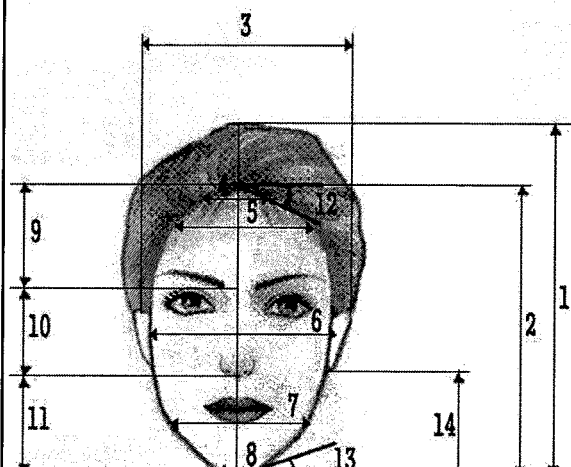
25) Davis, Marian L.(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pp.83-86.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주요 관심의 한 부분이 얼굴형으로 1930년 미국 헐리우드의 Westmore가 형제들은 골상학을 연구하면서 계란형, 긴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 얼굴형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기본형을 합친 형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7가지 형태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하였다.²⁷⁾

즉 현 미용업계 및 학계에서 사용되는 국내외의 얼굴유형 분류 방법은 계란형, 원형, 긴형, 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가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7가지 유형을 채택하기로 한다.

26) Tate, Sharon L.,(1991), Fashion Handbook, N, Y : Herper Collins Pub. p.104.

27) Westmore, Buddy(1930), The Westmore Beauty Book, N, Y : Westmore Co.

	<table border="1"> <tr> <td>1</td> <td>머리마루점 (vertex)</td> <td>머리부위의 정준선에 있어서 최고점</td> </tr> <tr> <td>2</td> <td>이마시작점 (trichion)</td> <td>이마 중앙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점</td> </tr> <tr> <td>3</td> <td>앞이마점 (frontotemporale)</td> <td>앞이마에서 머리가 나기 시작한 점</td> </tr> <tr> <td>4</td> <td>관골궁점 (bizygion)</td> <td>얼굴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td> </tr> <tr> <td>5</td> <td>하악각점 (gonion)</td> <td>아래턱 뼈 양쪽의 맨 바깥끝점</td> </tr> <tr> <td>6</td> <td>턱끝점 (menton)</td> <td>정중선상에서 아래턱뼈의 가장 아래쪽 두드러진 점</td> </tr> <tr> <td>7</td> <td>미간점 (glabials)</td> <td>정중선과 양미간이 교차되는 점</td> </tr> <tr> <td>8</td> <td>하비점 (subnasale)</td> <td>정중선과 코의 중심점이 만나는 점</td> </tr> <tr> <td>9</td> <td>귀볼점</td> <td>귀 볼 부위의 바깥 아래 끝점</td> </tr> </table>	1	머리마루점 (vertex)	머리부위의 정준선에 있어서 최고점	2	이마시작점 (trichion)	이마 중앙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점	3	앞이마점 (frontotemporale)	앞이마에서 머리가 나기 시작한 점	4	관골궁점 (bizygion)	얼굴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	5	하악각점 (gonion)	아래턱 뼈 양쪽의 맨 바깥끝점	6	턱끝점 (menton)	정중선상에서 아래턱뼈의 가장 아래쪽 두드러진 점	7	미간점 (glabials)	정중선과 양미간이 교차되는 점	8	하비점 (subnasale)	정중선과 코의 중심점이 만나는 점	9	귀볼점	귀 볼 부위의 바깥 아래 끝점															
1	머리마루점 (vertex)	머리부위의 정준선에 있어서 최고점																																									
2	이마시작점 (trichion)	이마 중앙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점																																									
3	앞이마점 (frontotemporale)	앞이마에서 머리가 나기 시작한 점																																									
4	관골궁점 (bizygion)	얼굴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																																									
5	하악각점 (gonion)	아래턱 뼈 양쪽의 맨 바깥끝점																																									
6	턱끝점 (menton)	정중선상에서 아래턱뼈의 가장 아래쪽 두드러진 점																																									
7	미간점 (glabials)	정중선과 양미간이 교차되는 점																																									
8	하비점 (subnasale)	정중선과 코의 중심점이 만나는 점																																									
9	귀볼점	귀 볼 부위의 바깥 아래 끝점																																									
	<table border="1"> <tr> <td>1</td> <td>머리길이 (head length)</td> <td>머리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직선거리</td> </tr> <tr> <td>2</td> <td>얼굴길이 (physiognomic face height)</td> <td>이마시작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td> </tr> <tr> <td>3</td> <td>머리너비 (head breadth)</td> <td>머리양쪽 가장 두드러진 지점간의 직선거리</td> </tr> <tr> <td>4</td> <td>이마시작폭 (trichion breadth)</td> <td>이마가 시작되는 부위의 수평거리</td> </tr> <tr> <td>5</td> <td>이마너비 (forehead breadth)</td> <td>이마 좌우 말제선간의 직선거리</td> </tr> <tr> <td>6</td> <td>얼굴폭 (bizygion breadth)</td> <td>좌우 관골궁 최외측점까지의 수평거리</td> </tr> <tr> <td>7</td> <td>하악각간폭 (bigonion breadth)</td> <td>좌우 하악각점간의 수평거리</td> </tr> <tr> <td>8</td> <td>턱끝점간직선거리 (bignathion breadth)</td> <td>턱끝점에서 직선적 수평거리</td> </tr> <tr> <td>9</td> <td>상안부 길이 (middle face)</td> <td>이마시작점에서 미간점까지의 수직거리</td> </tr> <tr> <td>10</td> <td>중안부 길이 (middle face)</td> <td>미간점에서 하비점까지의 수직거리</td> </tr> <tr> <td>11</td> <td>하안부 길이 (lower face)</td> <td>하비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td> </tr> <tr> <td>12</td> <td>이마각</td> <td>이마시작점 끝선에서 얼굴외곽선 사이 각도</td> </tr> <tr> <td>13</td> <td>아래턱 끝각</td> <td>턱끝점간 직선거리의 끝점에서 얼굴외곽선과의 사이 각도</td> </tr> <tr> <td>14</td> <td>귀 볼점-턱끝점 길이</td> <td>귀 볼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길이</td> </tr> </table>	1	머리길이 (head length)	머리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직선거리	2	얼굴길이 (physiognomic face height)	이마시작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3	머리너비 (head breadth)	머리양쪽 가장 두드러진 지점간의 직선거리	4	이마시작폭 (trichion breadth)	이마가 시작되는 부위의 수평거리	5	이마너비 (forehead breadth)	이마 좌우 말제선간의 직선거리	6	얼굴폭 (bizygion breadth)	좌우 관골궁 최외측점까지의 수평거리	7	하악각간폭 (bigonion breadth)	좌우 하악각점간의 수평거리	8	턱끝점간직선거리 (bignathion breadth)	턱끝점에서 직선적 수평거리	9	상안부 길이 (middle face)	이마시작점에서 미간점까지의 수직거리	10	중안부 길이 (middle face)	미간점에서 하비점까지의 수직거리	11	하안부 길이 (lower face)	하비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12	이마각	이마시작점 끝선에서 얼굴외곽선 사이 각도	13	아래턱 끝각	턱끝점간 직선거리의 끝점에서 얼굴외곽선과의 사이 각도	14	귀 볼점-턱끝점 길이	귀 볼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길이
1	머리길이 (head length)	머리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직선거리																																									
2	얼굴길이 (physiognomic face height)	이마시작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3	머리너비 (head breadth)	머리양쪽 가장 두드러진 지점간의 직선거리																																									
4	이마시작폭 (trichion breadth)	이마가 시작되는 부위의 수평거리																																									
5	이마너비 (forehead breadth)	이마 좌우 말제선간의 직선거리																																									
6	얼굴폭 (bizygion breadth)	좌우 관골궁 최외측점까지의 수평거리																																									
7	하악각간폭 (bigonion breadth)	좌우 하악각점간의 수평거리																																									
8	턱끝점간직선거리 (bignathion breadth)	턱끝점에서 직선적 수평거리																																									
9	상안부 길이 (middle face)	이마시작점에서 미간점까지의 수직거리																																									
10	중안부 길이 (middle face)	미간점에서 하비점까지의 수직거리																																									
11	하안부 길이 (lower face)	하비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12	이마각	이마시작점 끝선에서 얼굴외곽선 사이 각도																																									
13	아래턱 끝각	턱끝점간 직선거리의 끝점에서 얼굴외곽선과의 사이 각도																																									
14	귀 볼점-턱끝점 길이	귀 볼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길이																																									

[그림 2-12] 얼굴유형 분류기준

안현경(2006), 전계논문, p.24.

3) 얼굴의 황금분할

예부터 예술에 있어 인체 각 부분의 계량화와 아름다운 미학적 비례를 생각하여 예술로써 재현했다. 머리는 두정에서 아래턱 까지 전체의 1/8, 얼굴은 아래턱에서부터 이마의 두발이 나기 전까지 전체의 1/10로 했다. 그리고 코의 높이는 콧구멍에서 양 눈썹의 중앙한계선까지 얼굴의 1/3, 그 양 눈썹의 중앙에서 이마 위에 모발이 나기 전까지를 1/3, 아래턱에서 콧구멍까지를 1/3로 했으며 소의 8등신 미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 후 다양한 방법의 비례가 고안되어 사용됐지만 회랍의 유클리드에 의해 주장된 황금분할 또는 비례가 미학적으로 가장 중요시되어 안면 각 부에 있어서 아름다운 조화의 비례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온 비례가 되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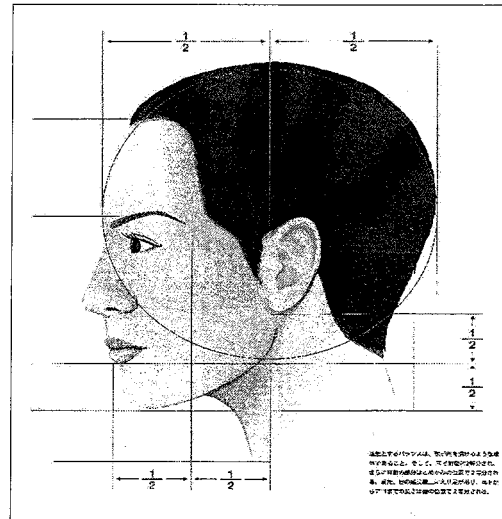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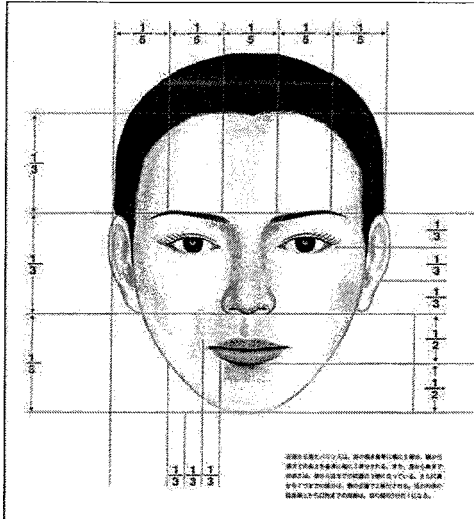
황금 분할이란 사람의 얼굴을 [그림 2-9]에서처럼 정면에서 본 밸런스는 눈의 폭을 기준으로 가로로 세 등분으로 나뉜다. 또 눈썹에서 코까지의 길이는 눈썹에서 눈까지의 거리의 3배가 된다. 특히 코에서 턱까지의 부분은 입술에서 2등분 된다.²⁹⁾ 눈에서는 [그림 2-9]에서와 같이 양 눈 사이의 거리는 눈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황금분할이다. 얼굴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얼굴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는 옆모습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코끝과 아랫입술, 턱 끝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가 가장 조화가 잘 이뤄진 이상적인 배열의 얼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옆모습의 경우는 [그림 2-10]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밸런스는 머리를 둥글게 그리는 것 같은 구체(球體)이다. 귀를 전후로 2등분 되고, 특히 귀의 앞부분은 관자놀이 위치에서 2등분 된다. 또 입술의 연장선 위에 옆 자락끝선이 있고, 귀 아래에서부터 턱까지

28) <http://dhparkps.com/new/main1-8.htm>(대구카톨릭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

29) 신미용출판사 “新美容 12月号”p37

의 길이는 입술의 위치에서 2등분으로 나뉜다.³⁰⁾

그러나 사람에 따라 긴 얼굴, 짧은 얼굴, 또는 넓은 얼굴, 좁은 얼굴, 둥근 얼굴, 삼각형의 얼굴 등 각자 형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위에서 말한 표준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림 2-13] 얼굴의 황금분할(정면)

[그림 2-14] 얼굴의 황금분할(측면)

신미용출판사 “新美容 12月号”p.36.

30) 신미용출판사 “新美容 12月号”p.36.

3. 동서양의 얼굴유형 분석 차이

얼굴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간의 차이가 있다. 서양은 표면적 과학적 분석이라면 동양은 내면적 요소에 의해 얼굴의 상이 변하고 만들어 진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서양의 과학적 접근법을 통한 얼굴유형 분석과 동양의 관상학적 접근에 의한 분석을 살펴보고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서양 과학적 접근에 의한 얼굴유형 분석

서양의 생체의 인류학적 고찰에 있어서는 대개 관찰에 의한 생체관찰방법과 계측에 의한 생체계측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인류학 초기에는 생체관찰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체계측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 경향이다.

생체계측은 Martin(1928)에 의해 인류학에 학문적 수립을 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생체계측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얼굴형 분류 방법은 앞에서의 얼굴형 분류방법에서 설명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평균 안면상과 미인상 연구 및 얼굴형 분류를 서양과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얼굴유형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철규, 이의태, 이재승³¹⁾등은 Barnett와 Whitaker(1986) 등이 사용한 얼굴의측정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여 서양과 젊은 한국 여성

31) 박철규, 이의태, 이재성(1998), 젊은 한국 여성의 중하안면 형태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5(1) pp.7-13.

의 중하안면 형태분석을 하여 서양여성과 한국여성의 얼굴이 다름을 측정하였는데, 한국여성은 수평면상에서의 거리가 백인여성들보다 넓었고, 천후평면상에서의 거리는 백인여성들보다 덜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직평면상에서의 거리는 두인종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각도를 비교하면 한국여성의 전안면각과 하안면각이 백인에 비해 더 컸으며, 후안면각과 상안면각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동양인의 얼굴이 서양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동그랗고 넓으면서 광대뼈와 하악각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의 미용적인 문제점 중에 안면의 길이에 비해 넓이가 크고, 특히 중안면부의 광대뼈와 하안면부의 하악각부가 돌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미용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동양인의 얼굴은 해부학적 특성상 서양에 비하여 넓고 각이 진 형태라는 연구³²⁾에서는 중안면부에 있는 관골이 앞과 옆으로 돌출되어 있고, 하안면부에서는 턱이 각이 져 있어 수평적으로 폭이 넓고 수직적으로는 얼굴 길이가 짧으며, 콧대가 넓고 짧고 코끝이 뭉툭하고 넓고 얼굴에 지방이 많아 둥글게 보인다는 연구,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얼굴형은 가름한 계란형인데 우리나라 현대 여성의 평균적인 얼굴길이는 보통 190-186mm이고, 얼굴 폭은 양쪽 광대뼈 사이의 가장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9-136mm 정도라는 연구가 있었다.³³⁾

한국여성의 얼굴은 서구의 미인관보다 중안이 상안과 하안보다 길고, 하안중에서 구열점에서 턱 끝점(후)까지의 길이가 짧다, 또한 하악간 거리가

32) 정경민, 김종환, 홍인표, 김현철(2003), 안면윤곽수술 15년의 임상경험, 대한성형과학회지, 34(5), p.610.

33) 양두병(2000), 미용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 서울 : 명상, pp.23-25.

측두간 거리와 관골간 거리보다 좁아 가름한 형태를 취한다.

이승철(2004)³⁴⁾ 등은 서양의 유명 연예인과 한국의 유명연예인의 안면 사진을 분석하여 대부분의 안면 구성요소 간의 비율에 있어서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서양과 한국의 미인관이 서양형을 기준으로 닮아 가고 있음을 밝혔다.

2) 동양철학적 얼굴형태 분류

(1) 관상의 유래

관상학이란 고대 동양의 선비들이 피상적으로 관찰하여 심상적으로 연구한 학문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경험적 통계학인 동시에 그 역사 또한 깊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 미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상학은 단순히 점을 치거나 예언하는 등의 추상적인 근거에 의한 다기 보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과학적이며 통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의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정잡배가 논하는 점성술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가 다르다³⁵⁾.

관상이야 말로 오랜 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통계학이며 더구나 오늘날의 관상학은 전래의 관상학에다 서양에서 연구 발전된 골상학을 결들이고 또 역학을 도입시켜 발전해 왔다.

34) 이승철, 김부여, 황라일, 강소라, 이지혁, 박홍식(2004), 균형 및 비례 측정법을 이용한 정면 사진 분석,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10(2), pp.72-78.

35) 고충환,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

(2) 얼굴 유형 분류

인간은 얼굴이나 몸의 특징에서 그 성격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관상학적으로 삼형질론(三形質論) 혹은 삼질론 이라 한다. 서양의 인상학에서 고안되었고 심리학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삼형질이란 각형(角型) 혹은 근골질형(筋,骨質型), 역삼각형 혹은 심성질(心性質,) 원형 혹은 영양질(榮養質)의 세 가지이다. 또한 삼형질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유형이 결합하는 변이형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인 6개 유형의 얼굴형과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형

각형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실행력, 행동력, 생활력이 가장 왕성한 얼굴 모형으로 뼈가 튀어나온 얼굴로써 하관이 튀어나왔으며 어깨 폭이 넓고 가슴 부분이 딱 벌어져 한눈에 봐도 균형 잡힌 남성적 체격을 지니고 있다. 상체가 역삼각형으로 발달해 있으며 근육은 단단하다. 얼굴은 사각형으로 모가 졌으며 광대뼈가 나와 앙상하고 살이 없이 대체로 울퉁불퉁한 편이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눈에 띄며 턱 밑 부분은 U자로 넓게 퍼져 있다.

② 역삼각형

역삼각형은 매사에 적극적인 각형에 비해 실행력이 떨어지는 공상형이라 할 수 있으며, 직접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을 고역이라 여기며 남성에 있어 이형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얼굴 몸집이 가늘고 연약한 느낌을 주며 어깨는 쳐져 있고 가슴도 늑골(肋骨)이 부각되어 있다. 의

외로 척수는 굵고 상체가 긴 편이며 얼굴 윗부분은 넓으나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이마는 비교적 넓어 코에서부터 턱으로 내려감에 따라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③ 등근형

등근형(원형)은 각형과 역삼각형의 양극단 사이에 들어 있는 형이어서 양쪽의 성격을 공유하는 형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살집이 좋고 두꺼운 가슴에 굵은 목, 어디에도 모가 없고 등근맛을 보이며 부드럽다. 가슴과 어깨보다 배 부분에 살이 많고 배가 앞으로 나와 있으며 비교적 허리가 굵다.

대개의 경우 얼굴이 크며 턱과 귀, 눈도 등근 편이고 눈꺼풀에 살이 많고 코와 입술도 두툼하다.

④ 장사각형(長四角型: 각형의 변형)

삼형질론에서의 3가지 기본형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형이 평면적인 결합을 하여 변이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변이형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장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있다³⁶⁾.

먼저 장사각형은 각형에 역삼각형이 가세된 형으로 살집이 표준인 정방형보다 적고 마른 형으로 역삼각형인 심성질의 요소가 가세된 형으로 그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은 길고 가늘어 진다. 얼굴생김새가 가늘며 길게 됨에 따라 성격도 변화된다. 각형의 성격인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에서 지능형으로 옮겨간다. 역삼각형의 심형질로 옮겨감에 따라 기품이 나타나지

36) 김성현(1995),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pp.95-100.

만 점점 성격이 까다로워지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⑤ 오각형(五角型: 각형의 변형)

오각형은 각형에 역삼각형이 끼어들어서 형성된 것인데 장사각형인 경우는 각형에 역삼각형이 들어있는 형태이고 오각형은 각형에 역삼각형이 아랫부분에 붙은 형태이다.

장사각형은 마찬가지로 각형에 비해 살집이 작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며 역삼각형이 끼어드는 정도가 현저할수록 강해진다. 얼굴의 아랫부분만이 변형이므로 본래 성격은 각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역삼각형의 영향으로 연구심이 왕성한 반면 인내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⑥ 육각형(六角型: 각형의 변형)

육각형은 각형의 중앙에 다시 각형이 가로로 들어오게 되는 형으로 각형의 강조형이다. 얼굴에 각형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 형으로 광대뼈가 돋보이고 관자놀이 아래턱에도 살집이 적은 까닭에 전체적으로 육각형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평면 복합 형태로 타원형과 조롱박형 등도 찾아 볼 수 있다. 타원형은 원형의 성질에 근골질의 성질이 가미된 것으로 주로 둥근맛이 나고 느슨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면이 보이기도 한다. 표주박형은 원형에 원형이 가미된 형으로 원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3) 오행(五行)에 따른 다섯 체형

사람의 체형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기운이 적용된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³⁷⁾.

① 목형(木)

목형은 나무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얼굴이 가름하고 파리하며 몸매는 곧고 흰칠하다. 두골이 풍용하여 머리가 다소 둥근 맛이 있으며 이마도 약간 나온 듯하며, 빼어난 목형은 맑고 깨끗한 기운이 인당에 서려 있고, 눈썹과 눈이 수려하며 모든 이목구비가 준수하다.

② 화형(火)

화형은 불꽃이 위로 뿔족하게 타오르는 듯이 날렵하게 생기고 기색이 붉으며,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날렵하고 날씬하다. 얼굴이나 피부는 발그스레하면서 얇고 투명하고 얼굴이 길고 귀가 약간 뒤집어져 높이 붙어 있으며, 수염이 무성하지 못하고 빼나 힘줄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기색은 선명하다.

③ 토형(土)

토형은 흙의 중후한 기질을 닮아서, 얼굴이 원만. 풍요하면서 황색을 띠고, 머리와 얼굴이 크고 둥글둥글하며 두텁고, 코가 풍요롭고 왕성하게 발달해 있다. 입도 큼직하고 입술이 두터우며 턱도 풍부하여 전체적으로 원만해 보

37) 신기원(2000), 내관상 내가 본다, 한세, pp.3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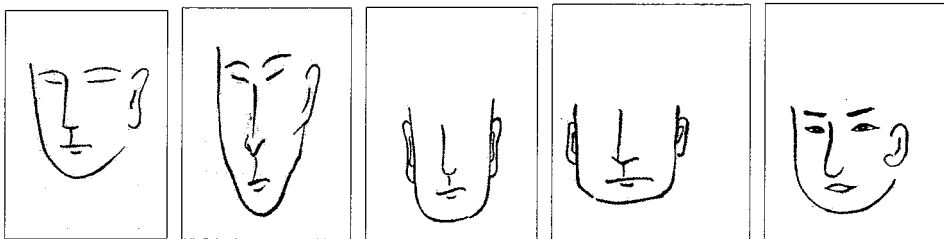
이는 상이다. 목형이나 금형, 화형에 비해 피부가 환하지 않고 약간 탁한 듯이 누런빛을 띤다.

④ 금형(金)

금형은 쇠의 모난 성질이 많아 얼굴이 사각형으로 균형을 이루며 얼굴빛이 희며 단단한 근골질로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마치 잘 만들어진 로봇을 연상케 한다. 전형적인 무인형으로서 옛날이면 무장, 요즘이면 사관학교의 생도나 군입타입이다. 맑고 아담하지만 뼈대가 단단한 체형을 지니고 있으며 음성 역시 맑고 깨끗하여 윤택한 여운을 남긴다.

⑤ 수형(水)

수형은 물의 윤택한 성질과 둥근 모양을 따라 얼굴과 몸집에 살이 많아서 항아리처럼 둥글며,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 머리카락이나 팔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의 각 부분과 귀. 코. 입. 눈 등에도 골고루 살이 많고 두텁다. 기색은 윤택하고 기운이 안정되고 조용해 보이며, 피부는 흰 편이나 다소 검은 듯한 기풍이 감돈다.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그림 2-15] 오형에 따른 얼굴유형 분류

신기원(2000), 내관상 내가 본다, 한세, pp.39-52.

Ⅲ.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

헤어 디자인 예술 분야는 장식 예술 이상으로 미적, 기능적 요구(need)를 충족시켜주는 응용 예술의 한 분야이다. 조각, 그림, 무용, 음악, 건축과 같이 헤어디자인도 예술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각각의 디자인 분야는 서로 다른 매체와 도구를 사용하지만 서로 공통점이 많다. 모든 디자인은 창조적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작품의 요소들 사이에 규칙적인 관계 예술적 과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다양한 조형성과 장식성을 바탕으로 헤어스타일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다원적이고 절충적인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형태, 질감, 색상 3가지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헤어스타일의 디자인 요소

1) 형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형태란 구성된 윤곽 및 지각되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말한다.³⁸⁾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착용자의 실루엣을 형성시켜주는 기본적인 양식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는 몸에 대한 시각과 탈신

38) HAIR SCULPTURE LADIES(1994), Hong Kong :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p.21.

체화의 개념³⁹⁾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변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헤어스타일 형태는 자연적인 형태와 인위적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⁴⁰⁾, 자연적인 형태로는 특별한 스타일링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커트나 웨이브된 모발을 자연스럽게 흐트려 그대로 연출하는 것으로 그 형태의 윤택선에 따라 크게 원형, 중형, 타원형, 삼각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인위적인 형태는 형태의 과장과 장식의 첨가로 형태의 과장은 모발만을 이용한 것으로 자신의 모발이나 또는 모발과 유사한 소재를 이용하여 과장적인 조형의 변화를 유도한 것을 말한다. 장식의 첨가는 모발이외의 소품을 이용한 것과 액세서리인 모자, 헤어밴드, 반다나, 베일 등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⁴¹⁾.

또한 형태에는 구상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가 있다.⁴²⁾ 구상적 형태는 구체적인 형태의 의미를 내포하며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물 꽃, 동.식물, 조개껍질, 나무모양 등의 객관적인 실물에 적용한 형태를 말한다. 이를 헤어디자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순수한 헤어 커팅으로 본질적 형태 그대로의 모질, 모류, 두상의 조건, 모량의 특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들 수 있다.

추상적 형태는 기하학적인 것과 비기하학적인 것으로 나눌 수 도 있고, 고유한 형태, 변형된 형태, 창조적인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 이들을 헤어스타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은 커트의 기본형태 라인을 강조한 커넥션 커트스타일이며, 비 기하학적인 것은 커트스타일의 기본 형태를 무시하고 모발 끝처리를 아주 가볍게 한 디스커넥션 스타일을 의미

39) 김민자(2004), 복식미 옛보기-복식미학 강의 2, 교문사, p. 81.

40)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41) 이수인(2005), 상계논문, p.22.

42) 권상구(2002), 기초디자인, 미진사, p.91.

한다.

헤어스타일과 관련한 비기하학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고유한 형태는 대상의 정밀묘사를 의미할 수 있는데 헤어스타일에서는 커트디자인과 비교할 수 있다. 변형된 형태는 정물화, 유화 등을 의미하고 물체에 작가의 의도에 의해 색채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디자인 요소에 의한 커트와 염색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인 형태는 비구상이나 추상화와 비유할 수 있고 커트라인의 형태를 무시한 개념의 디스커넥션과 비유할 수 있다.

헤어커트디자인의 구상적 단계에서는 입체적 형태, 즉 모델 두상의 조건, 모질, 모류, 모양의 특성을 파악한 뒤 평면적인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연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추상적 형태는 수학적 법칙과 함께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타일 중심의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을 연출 하려면 변형된 형태와 창조적 형태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조형디자인에서와 같이 헤어커트디자인에서도 점, 선, 면의 역할은 전체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가 된다⁴³⁾.

이하에서는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자연적 형태와 인위적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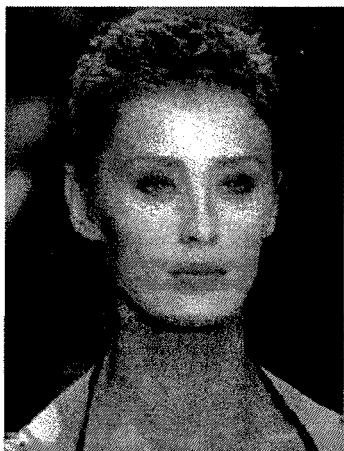
자연적인 형태는 모발을 자연스럽게 흘트려 놓은 형태로 장식이나 인위적

43) 하경연(2002), 헤어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헤어커트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4.

인 작업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커트선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커트는 머리의 형태를 조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 다른 디자인을 시행하기 앞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커트선에 따른 이해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①원형

자연적 형태 중 원형은 전체적인 윤곽선이 원형으로 커트 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발의 길이가 짧고 모발의 길이가 동일한 유니폼 스타일⁴⁴⁾이나 네이프 쪽은 짧게 처리하고 탑부분은 약간의 길이감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두상과 유사한 형태이다.



[그림 3-1] Dire
97S/S, collection



[그림 3-2] Garçons
01S/S, collection



[그림 3-3]Yamamoto,
01F/W, firstview

[그림 3-1]은 유니폼의 형태로 전체적인 길이를 동일하게 커트하여 전체적으로 원형이면서도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2]는 유니폼 커트의

44) 유니폼커트는 전체적으로 머리의 길이가 동일하고 무게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머리는 두상의 곡면으로 흘러져서 전체적으로 머리끝이 보이는 머리질감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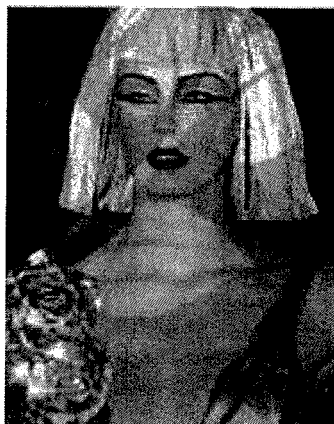
원형이라도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3-3]은 디테일적인 부분에 변화를 준 것으로 특히 프린지 부분에 불규칙한 뱅(bang)을 연출하거나 또는 얼굴을 사선으로 가리는 변화를 통해 더욱 야생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② 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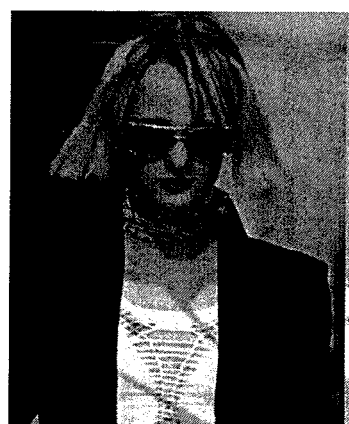
자연적 형태 중 중형은 전체적인 머리길이가 어느 한 지점에 모두 함께 모여 무게감을 형성하는 커트의 유형으로 탑 부분은 둥글게 표현되고 머리 끝 선은 함께 모여 정돈되어 무게선이 형성된다. 이러한 커트 선을 솔리드 형태⁴⁵⁾라고 하며 피봇포인트를 기점으로 모든 머리길이를 아래로 내려뜨렸을 때 무게 선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커트는 전체적인 길이나 색상, 앞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림 3-4] Yamamoto
96S/S, collection



[그림 3-5] Galiano
97F/W, collection



[그림 3-6] Gaultier
01S/S collection

45) 솔리드 형의 커트는 머리길이가 윗부분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빗질 했을 경우 한 위치에서 정돈되는 형태이다.

[그림 3-4]와 [그림 3-6]은 중형의 특징인 극단적인 스트레이트 질감에 의해 끝이 힘이 들어갈 정도로 뺏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솔리드형은 신비스러우면서도 이지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커트로 주로 웨이브 보다는 직 모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3-5]는 특별한 디테일에 변화를 주어 모발을 가닥가닥 땅아 전체적으로 무겁게 정돈되는 솔리드형의 중형을 표현하고 있다.

③ 타원형

타원형은 대체적으로 머리길이가 길며 탑에서 네이프 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이다. 전체적인 윤곽선은 머리윗부분이 둥글게 보이고 아랫부분은 층을 주면서 전체적인 양을 조절하여 가볍게 내려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3-7] Lacroix
95S/S, collection



[그림 3-8] Miyake
00S/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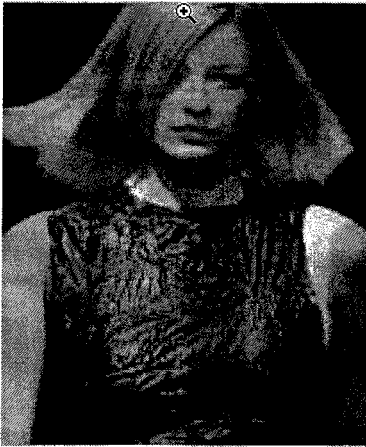
[그림 3-9] Westwood
03S/S, collection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타원형은 대체적으로 머리길이가 길고 질감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다른 커트의 변화는 주로 앞머리에서 보여지는데

타원형은 앞머리의 특별한 변화 보다는 주로 턱선 밑의 긴 모발로 여성스러운 특징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다.

④ 삼각형

삼각형은 머리길이가 머리 끝부분을 중심으로 무게선이 모아지며 이렇게 모아진 무게 선에 질감 변화를 주어 팽창시키고 머리 윗부분은 두상에 밀착시켜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대조적인 부피감을 형성하도록 이루어진다.



[그림 3-10] McQueen
95S/S, collection



[그림 3-11] Moschino
04S/S, collection

위의 그림과 같이 삼각형은 대체적으로 웨이브가 있는 아랫부분과 웨이브가 없는 윗부분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⑤ 혼합형

혼합형은 원형, 종형, 타원형, 삼각형 등의 여러 자연적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3-12] Gigli
96S/S collection



[그림 3-13] McQueen
97S/S, collection



[그림 3-14] Lacroix
01S/S, collection

[그림 3-12]는 턱 선을 중심으로 얼굴 쪽으로 길이가 길어지는 무게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뒷부분의 네이프 쪽은 원형으로 두상에 미착되어 있다. 따라서 종형과 원형의 혼합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13]은 원형과 타원형의 혼합으로 네이프 부분을 길게 타원형으로 연출하고 그 위의 부분을 유니폼 레이어 커트인 원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14]는 왼쪽 부분의 사이드는 종형이고 나머지 부분은 타원형으로 좌우 다른 형태의 혼합형이 보이고 있다.

(2) 인위적 형태

인위적 형태는 인위적으로 머리를 조형하거나 장식품을 첨가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위적 형태는 모발을 이용한 형태의 과장과 장식품을 첨가한 장식의 첨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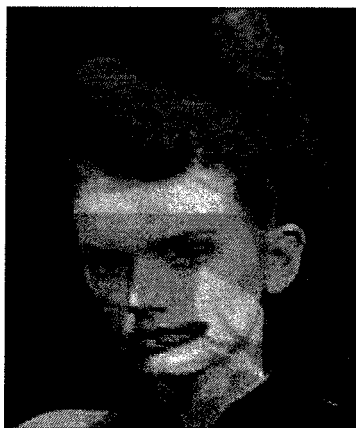
① 형태의 과장

형태의 과장은 장식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모델의 모발이나 가चे 또는 모발과 유사한 소재를 이용하여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 과장적으로 표현한 스타일이다.

형태의 과장은 본래의 머리 형태와는 다르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크기에 대한 과장이 가장 많고,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중력방향이 아닌 옆이나 위로 향하도록 머리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3-15] McQueen
96S/S, collection



[그림 3-16] Garcons
04F/W, style

[그림 3-15]는 모발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방향인 위로 향하게 모발을 모아 조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과장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 3-16]은 본래의 모발뿐만 아니라 가चे를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② 장식의 첨가

장식의 첨가는 장식품이나 소품 등을 이용한 것을 말한다. 장식의 첨가에 사용된 장식품이나 소품 등은 오브제의 사용과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분류되는데 오브제의 사용은 과거에 헤어스타일의 장식품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체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액세서리의 사용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액세서리인 헤어밴드, 모자, 반다나, 베일 등의 사용을 말한다.



[그림 3-17] Miyake
02S/S, collezioni



[그림 3-18] Galiano
04F/W, style

[그림 3-17]은 줄기나 꽃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모델의 얼굴과 두상이 구분 안 되고 장식품을 강조함으로써 얼굴을 무시하고 장식품인 오브제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3-18]은 회교도 수도사에서 보여 지는 슈가로프햇(sugar-loaf hat)로 회교도인들에게는 널리 이용되는 모자이다. 그러나 오늘날 보여 지는 슈가로프햇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성형된 모양과 장식으로 나타났다. 즉 수술을 달고 메탈로 장식을 하여 종교적 모자로서는 볼

가능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2) 질감

질감이란 형태, 색채와 함께 디자인의 필수요소로서 재료나 기법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체 표면의 특징으로서 촉각으로부터 시각적 촉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느낌을 말한다.⁴⁶⁾ 헤어디자인의 질감도 디자인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느낌, 손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의미한다.

모발의 질감은 모발이 갖는 기본적 성질과 물리적으로 변화된 성질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 성질은 반 곱슬의 모발, 강모, 연모, 가는 모발 등이며, 물리적 성질은 인위적으로 웨이브의 형태를 연출시킨 상태의 모발이나 염색, 펴머, 과다한 빗질로 인해 모발이 손상된 상태의 모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다. 커트디자인에서는 스타일에 따른 무게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발의 전체적 표면은 촉각, 시각적 효과에 의해 거칠게 또는 부드럽게 보여 질 수 있으므로 질감 처리 테크닉을 이용하여 얼굴의 형태 선을 부드럽거나 강하게 연출할 수 있다⁴⁷⁾.

질감은 또한 시각적, 촉각적 질감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각적 질감은 우리에게 익숙한 색과 명도, 패턴의 질감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평면적인 질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촉각적인 질감은 촉각적인 표현으로 거침, 매끄러움, 마름, 젖음, 부드러움과 같은 효과로써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질감은 어떤 대상물을 직접 대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에게 기억 속에서 감각적인 반응이나 촉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46) 박형심 외 5인, pp.162-165.

47) 하경연(2002), 전계논문, p.22.

있도록 해준다⁴⁸⁾.

헤어스타일에 있어서의 질감 또한 시각과 촉각적인 감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크게 직 모와 웨이브 모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 모는 전혀 웨이브가 없는 헤어스타일로써 머리를 아래로 빗질 했을 때 겉모습이 매끄럽게 나타나는 경우와 중간 중간 모발의 끝부분이 거칠게 튀어나와 이루어지는 거친 모발로 분류 된다⁴⁹⁾. 웨이브 모는 웨이브 형태에 따라 각진형과 곡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3-19] Moschino
97S/S, collection



[그림 3-20]Dior
04S/S, style

3) 색상

색상의 근원은 광선이다. 광선은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광원으로부터 직접 오기도 하고,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오기도 한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광선은 시신경과 뇌를 거치면서 파장에 따라 갖가지 색상을 지각하게 하며 또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주관적인 판단도 하게 한다⁵⁰⁾. 헤어스타일

48) 김인혜(2003), 디자인 발상, 미진사, p. 30.

49) HAIR SCULPTURE(1994), ibid, p. 21.

에서 보여 지는 색상은 색상에서 오는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명도와 차원(입체감)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또한 생동감과 방향감에 대한 착시를 일으키게 하여 특정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한다⁵¹⁾. 즉, 전체적인 머리형은 동일하지만 색상을 더해 주어 명도와 차원(입체감)이 달라지고 머리 질감에서 흥미가 더해진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에 있어 색상에 대한 특성에 따라 기본 색상과 표현방법에 따른 색상표현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모발의 기본색상

모발의 기본색상은 전체적인 색상으로 무채색, 유채색, 혼합 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채색은 명도의 차이만 나는 것으로 검정, 회색, 은색, 흰색 등의 색상으로 나타나며, 크게 블랙과 화이트의 2가지 색상계열로 나타난다. 유채색은 레드, 오렌지, 브라운, 옐로우, 브론디, 블루, 그린, 바이올렛 등의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크게 6가지 계열 즉, 레드,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린, 바이올렛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혼합색은 다양한 색상의 계열이 합쳐져서 나타난다⁵²⁾.

(2) 색상표현 기법

색상표현기법은 모발의 기본색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염색기법을 사용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색상표현기법은 크게 대조(contrast), 교대(alternation), 진행(progression), 강조(accent)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⁵³⁾.

50) 이은영(2003), 복식디자인론, 교문사, p. 93.

51) HAIR SCULPTURE LADIES(1994), ibid,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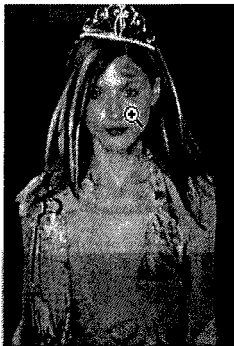
52) 이수인(2005), 전개논문, p.49.

교대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되풀이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최근 이용된 여러 표현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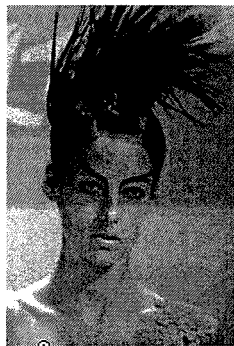
강조는 헤어스타일에 악센트를 줌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조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대조보다는 적은 부분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진행은 상승 혹은 하강으로 점차적으로 색상이 변하는 그라데이션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모발이 층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헤어스타일의 색상표현기법 중 진행은 운동감, 방향감과 입체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

대조는 반대되는 요소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따뜻한 색조와 차가운 색조의 조합이나 명도의 차이가 최소 명도3도 이상 나는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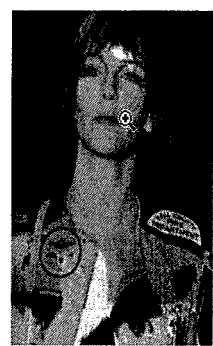
[그림 3-21]Dior
01S/S, style



[그림 3-22]McQueen
96S/S, style



[그림 3-23]Galiano
04S/S, style



[그림 3-24] Galiano
01S/S, style

[그림 3-21]은 명도 차가 분명한 모발을 이용해 세로방향의 교대 기법을 이용하여 직 모의 지루함을 극복함과 동시에 운동감까지 부여하였다. [그림

53) CORLOR DESIGN(2001), Hong Kong :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p.174.

3-22]는 강조로 모히칸 스타일로 조형하고 머리 끝부분 중 일부분만 염색하여 전체적으로 역동감을 표현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림 3-23]은 명도의 차를 이용한 진행방법으로 위로 향하는 운동감과 방향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3-24]는 대조기법으로 겉머리와 속머리의 명도차를 3도 이상 되도록 표현함으로써 더욱ダイナミック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헤어커트 스타일의 종류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헤어커트는 가위, 레이저, 클리퍼, 빗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모발의 양을 조절하고 길이를 정리하는 단순히 모발의 길이를 자르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헤어스타일링을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하나의 커트 스타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간결성, 예술적인 감성, 상상력, 기술의 조합과 통제력 등이 요구되는 창조적이며 전문성 있는 헤어커트 기술이 필요하다.

헤어커트를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먼저 길이에 따른 분류로는 롱 헤어(long hair), 미디움 헤어(midium hair), 쇼트 헤어(short hair)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층에 따른 분류로는 원랭스(one lenght), 그라쥬에이션(graduation), 인크리징 레이어(increasing layer), 베이직 레이어(basic layer)로 분류할 수 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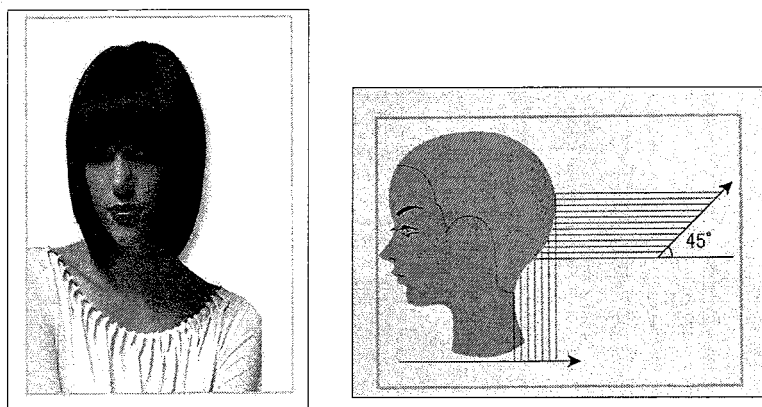
1) 원랭스 커트 스타일

(1) 원랭스 커트의 개념

54)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2004), 헤어컷 디자인, 청구문화사, P. 11.

원랭스 커트의 개념은 머리카락을 직선의 동일선상에 놓이도록 커트하는 것이며 헤어커트의 기초이다. 즉, 동일한 직선상에서의 단차가 0°인 스타일이다. 또한 스타일을 결정하고 머리흐름, 모량, 모질 상태 등을 생각하여 섹션을 나누고 서브섹션 폭은 좁게 잡고 약간의 텐션(tension)을 붙이는 커트하는 기법이며 블런트 커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지만 정확한 커트라인이 요구된다.

원랭스 커트라인의 성격으로는 직선이며 명쾌하고 곧고 힘이 강해 보인다. 또한 단조롭고 긴장감이 있으며 남성적이다. 커트라인의 방향과 움직임으로는 수직선이 강한 모발의 형태로 상하 수직으로 당겨지며, 구심적이고 내성적이다. 커트라인의 밸런스로는 안정감이 있고 정적이며, 고전적인 인상을 준다. 또한 개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원랭스의 센터파트는 강직하고 예리하며 또렷한 인상과 안정감이 있고 평화적이다. 커트의 구성은 커트라인에 모든 머리카락의 무게와 양이 가해지고 디자인 기점에서의 끝선까지의 면의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둥근 두상의 모발을 어디서 섹션하여 어디어디를 이어가면 같은 길이가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조형을 배우는데 가장 적합하며 둥근 얼굴인 사람, 사각형의 얼굴인 사람, 턱뼈가 튀어나온 사람,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그림 3-25] 원랭스 스타일과 측면구조

(2)원랭스 커트의 형태

원랭스 커트의 구체적인 형태는 직선커트의 수평보브, 후경사 보브, 전경사 보브 등 아래쪽(end line)이 직선 스타일로 면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며, 수평(호리존탈)또는 경사 섹션(다이에거널)을 하여 판넬을 아래로 내려서 커트한다. 원랭스 커트라인은 어깨선에서 네이프 포인트선 사이에서 라인이 설정된다. 백 부분의 라인보다 사이드라인에 의해서 형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원랭스란 수평라인을 지칭하는 것이며, 둥근라인은 이사도라 스타일이라고 한다. 한편 사선으로 이루어진 원랭스 스타일은 스파니엘 이라고 한다. 수평선의 원랭스 커트는 얼굴형태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반하여, 둥근라인의 원랭스와 이사도라는 얼굴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이끌며, 사선라인의 스파니엘은 울동감을 줌으로써 개성미를 연출할 수 있게 한다⁵⁵⁾.

① 수평보브의 모양과 섹션방향과 커트라인

수평라인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계란형 얼굴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세로의 모발길이를 구별해서 상하의 밸런스를 잘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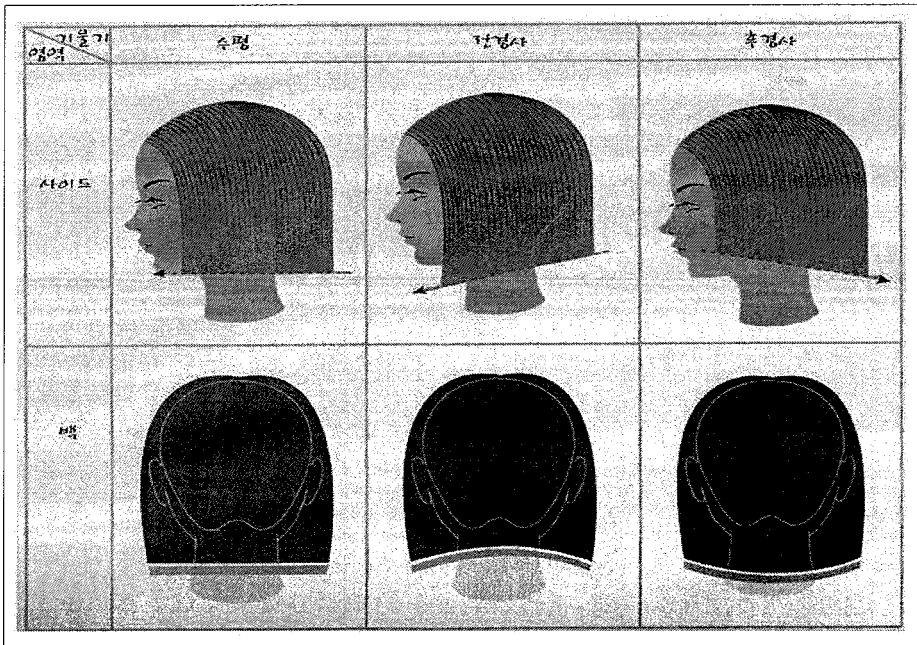
② 전경사보브의 모양과 섹션방향과 커트라인

전경사라인은 구심적인 방향성이 입체적인 얼굴형을 나타낼 수 있다. 턱의 약간 앞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턱 라인이 스타트하게 보일 수 있으며, 백 센터 부분의 상승선에 의해서 목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전신의 키가 커 보일 수 있다.

55) 하경연(2002), 전계논문, p.33.

③ 후경사 보브 모양과 섹션방향과 커트라인

후경사라인은 얼굴형에 있어서 코를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튀어나온 턱을 커버할 수 있고, 백 센터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무게감에 의해서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림 3-26] 원랭스커트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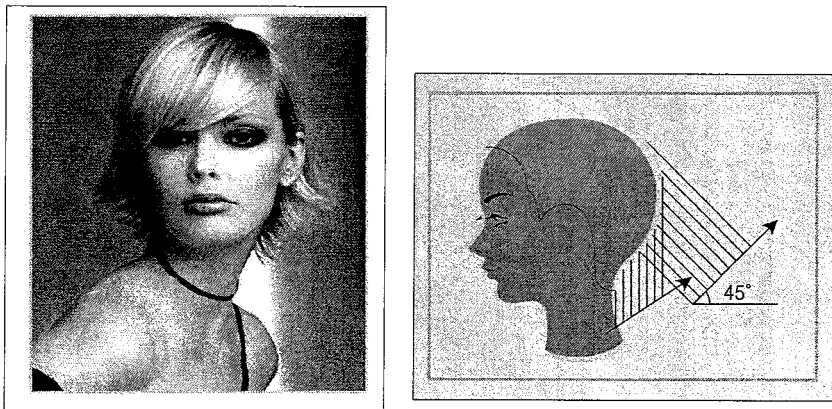
2) 그레쥬에이션 커트 스타일

(1) 그레쥬에이션 커트의 개념

그레쥬에이션이란 단계, 등급, 경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윗머리보다 밑머리(백 포인트 아래)의 모발의 길이가 짧은 모양이 되도록 두발의 길이에 단차를 주는 커트이다. 보통 두발을 두피로부터 90° 미만으로 들어서 자르면

두상의 프론트, 백, 네이프, 사이드 등 부분적인 입체 헤어스타일 연출에 효과적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쥬에이션 헤어컷트는 헤어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시각적으로 인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점과 점의 정확한 연결로 모발 끝의 밸런스와 유동성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숏 헤어스타일에 많이 응용되어 얼굴형과 두상의 특성을 살리는데 유리하며 각 섹션의 세부적인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3-27] 그래쥬에이션 스타일과 측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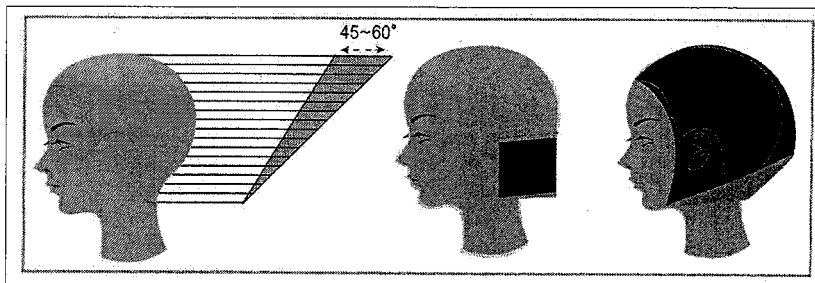
(2) 그래쥬에이션 커트의 중요 포인트

그래쥬에이션 커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각도이다. 각도란 커트할 때 모발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며 각도에는 두상에 대한 두상각도와 지면의 수직이나 수평에 대한 지면각도가 있다. 그래쥬에이션 커트에서는 주로 지면에 의한 각도에 준하여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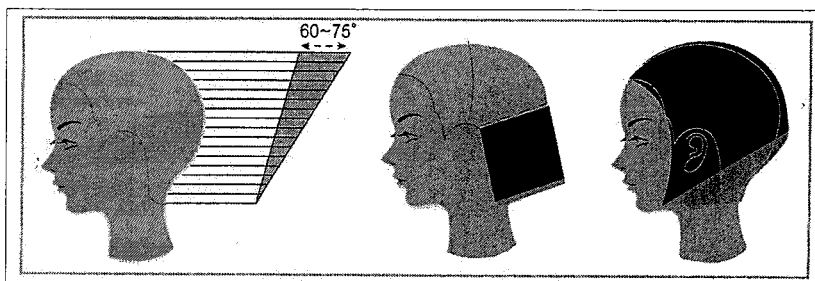
커트하기 위하여 일정한 모발을 얇게 뜨는 것을 슬라이스라고 한다. 그래

쥬에이션 커트란 미세한 단차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미세한 단차를 주기 위해서는 서브섹션의 폭을 얇게 1-1.5cm씩 나누어 커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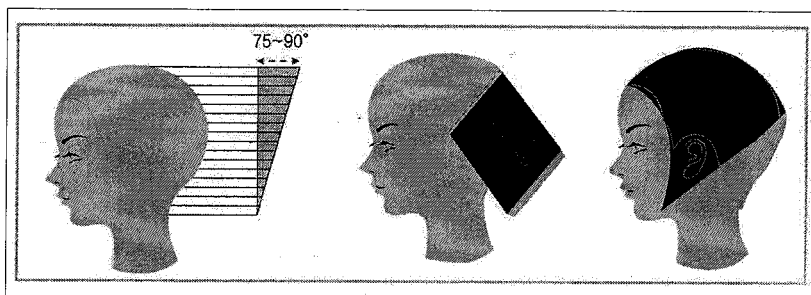
커트하기 위해서 모발을 잡았을 때, 섹션에 대해 모발을 잡아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커트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중력에 의해 밑으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방향에서 엘리베이션을 주어 커트하면 그레쥬에이션이 만들어진다. 사선 섹션에서 수직방향으로 당겨서 커트하면 그레쥬에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는 섹션의 방향으로 자연방향에서 변화했기 때문이다. 섹션의 각도가 지면에서 크면 클수록 그레쥬에이션의 단차도 커진다. 이는 섹션의 방향과 동일하게 빗질하여 섹션의 방향에 동일하게 엘리베이션을 주어 커트한 경우이다. 길이와 상관없이 선을 연결하거나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그림 3-28] 로우 그레쥬에이션 : 서브섹션 각도(낮을 경우)



[그림 3-29] 미디움 그레쥬에이션 : 서브섹션 각도(중간일 경우)



[그림 3-30] 하이 그레주에이션 : 서스섹션 각도(높을 경우)

3) 레이어 컷 스타일

(1) 레이어 컷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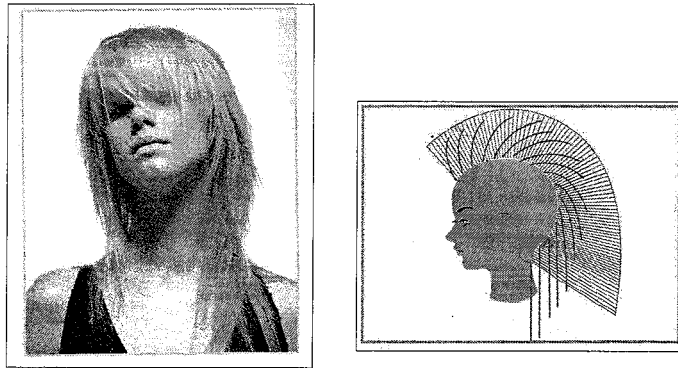
레이어 컷트는 컷트 된 헤어스타일이 아래쪽으로 내려 갈수록 모발의 길이가 동일하거나 길어지며 반대로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짧아지거나 동일한 길이의 모양이다. 헤어스타일의 응용범위가 넓고, 넓은 연령층에 적용이 용이하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모량이 많은 사람은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모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풍성함을 줄 수 있는 헤어컷트 기법이다.

레이어 컷트의 특징으로는 헤어스타일의 응용범위가 넓고, 넓은 연령층에 적용이 용이하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며, 모량이 많은 사람은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모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풍성함을 줄 수 있는 헤어컷트 기법이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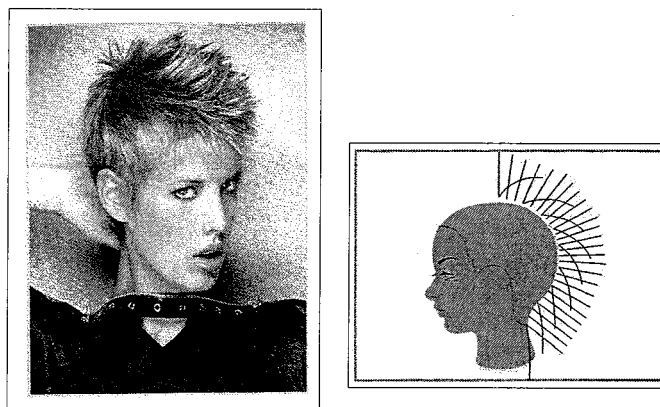
레이어컷트는 작업방법에 따라 베이직 레이어와 인크리징 레이어(아웃레이어)로 나누어진다. 베이직 레이어는 두피에 대해 90° 각도로, 인크리스 레

56)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2004), 전제서, p.139.

이어는 두피에 대해 90° 이상의 각도로 판넬을 잡고 커트하는 방법이다. 또한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아웃레이어가 있는데, 기본 레이어는 목선을 가늘어 보이게 하므로 도회적인 세련미를 주고 있다.



[그림 3-31] 인크리징 레이어 스타일과 측면구조



[그림 3-32] 베이직 레이어 스타일과 측면구조

4) 복합형 커트 스타일

(1) 라인과 라인의 결합

선과 선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새로운 형태가 연출될 수 있다. 사선과 사선을 만나게 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지만 울동감을 동시에 느끼게 함으로써 지루함을 덜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라인의 커트 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얼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형태와 형태의 결합

형태와 형태의 결합이란 스타일과 스타일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그레쥬에이션과 레이어의 결합 또는 원 랭스와 그레쥬에이션의 결합, 원랭스와 레이어의 결합 등 디자이너의 감각과 기술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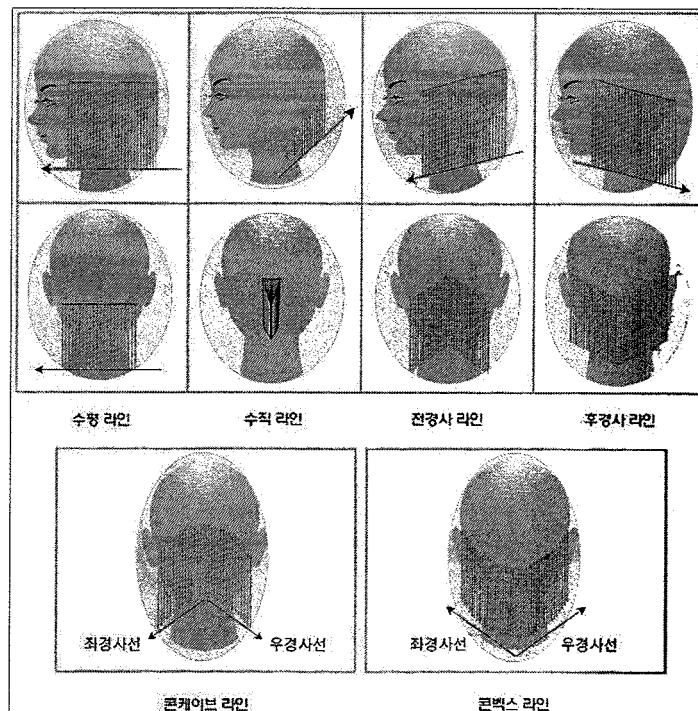
3. 헤어커트 형태 기본 요소

1) 커트라인

디자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선이다. 정확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일에 맞는 커트라인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커트라인에는 수평커트라인, 수직커트라인, 사선 커트라인과 둥근 커트라인이 있다. 사선커트라인은 전경사선과 후경사선에 의한 커트라인이 있다. 그리고 사선 커트라인에는 콘케이브형의 사선과 콘벡스형의 사선 라인이 있다⁵⁷⁾.

57)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2004), 상계서, p.38.

또한 모발을 자르는 지점에 따라 고정커트라인과 이동커트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커트라인은 고정된 어느 한 지점에서 커트를 하는 방법이며, 이동커트라인은 커트되는 지점이 두 번 이상 이동하거나 계속적으로 지점이 이동되어 커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헤어커트 시 전체적인 길이의 기준이 되는 라인으로, 처음에 커트한 길이를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커트 스타일의 형태를 좌우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커트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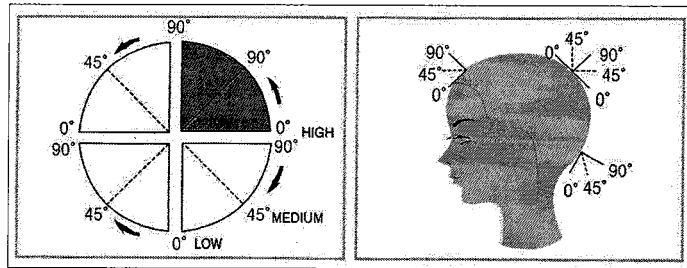


[그림 3-33] 경사커트라인의 종류

2) 커트의 각도

커트의 각도는 두상의 곡면에서 들어 올리는 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각을 형성해서 커트를 하게 되면 다양한 층의 변화와 다양한 스타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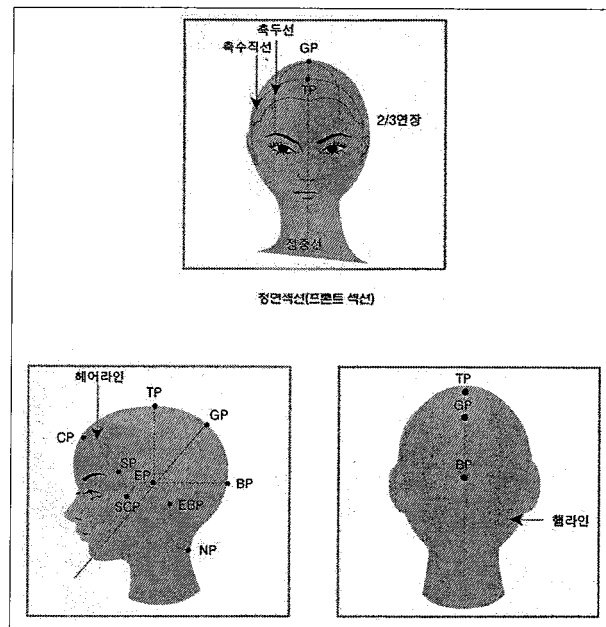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모발을 들어올리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좌측 그림은 지면에 대한 각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우측 그림은 두상의 곡면에 대한 각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3-34] 커트를 위한 패넬의 각도

3) 두상의 구조와 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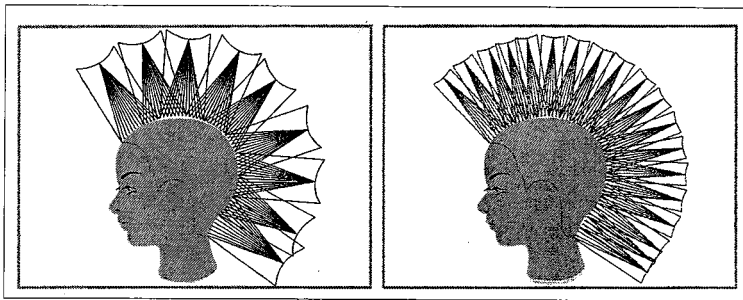
두상의 구조는 정면(프론트), 측면(사이드), 후면(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커트 시에 섹션을 나눌 때 정면에서의 섹션, 측면에서의 섹션, 후면에서의 섹션이 대표적인 두상의 섹션이다.



[그림 3-35] 두상의 포인트와 섹션

4) 베이스를 이용한 헤어커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섹션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가르마를 타게 된다. 이처럼 두피 부분의 가르마에 의해 만들어진 모양을 베이스라고 한다. 커트 시 베이스를 중심으로 스트랜드의 방향을 변화시키면 베이스의 위치에 따른 모발의 길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트랜드가 베이스의 중앙에 모이게 하고 커트를 하면 베이스 중앙의 모발이 짧고 베이스 양쪽의 모발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랜드가 베이스의 가장자리 쪽으로 기울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가장자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순차적으로 모발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역으로 짧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3-36] 두부전체로 본 온 더 베이스의 도해도

IV. 얼굴 유형에 따른 헤어컷 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

1. 얼굴유형과 헤어컷 스타일의 상관관계

1) 얼굴형과 두상의 윤곽

두상의 골격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상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과 안면골로 구분되며 두개골은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로, 안면골은 광대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두상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두개골은 남성보다 작고 의 후두부돌출부분과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골격 차이를 알 수 있지만 두개골에서도 여성, 남성의 특징을 잘 살펴 헤어컷 디자인을 해야 한다.

또한 두상의 형태가 입체적이거나 평면적인 형태를 지닌 사람, 울퉁불퉁해 보이는 형태 등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를 지닌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돌발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시각적, 촉각적인 감각을 통해 확인을 함으로써 헤어컷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1) 정면에서의 얼굴형

라운드형의 얼굴형은 길어 보이고 좁아 보이게끔 만들어야 하므로 앞부분 머리를 높게 하고 사이드 부분은 볼륨이 없게 하며 앞 가리마는 피하는게 좋

다. 사각형 얼굴형의 윤곽은 둥근 느낌이 들도록 작업해야 하며, 삼각형의 얼굴형은 이마가 좁고 턱선이 넓은 얼굴형으로 넓게 보이게 해야 한다. 또한 역삼각형의 얼굴형은 이마가 넓고 양 턱선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톱을 약간 높여서 큰 뱅으로 이마를 좁게 하고 볼의 상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밀착시키고 하부에는 볼륨을 많이 생기게 하여 뽀족한 턱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그림 4-1] 앞면의 얼굴형

(2) 측면에서의 얼굴형

측면에서의 얼굴형은 일직선형, 콘벡스 형, 콘케이브형, 낮은 이마와 돌출된 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일직선형은 이상적인 측면의 얼굴형으로 대부분의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콘벡스형은 튀어나온 턱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준다. 콘케이브형은 이마쪽으로 꺾이나 뱅을 만들어 들어간 이마를 감추어 주고 네이프와 양사이드 모발은 얼굴 가까이 끌어낸다. 낮은 이마와 돌출된 턱은 낮은 이마를 높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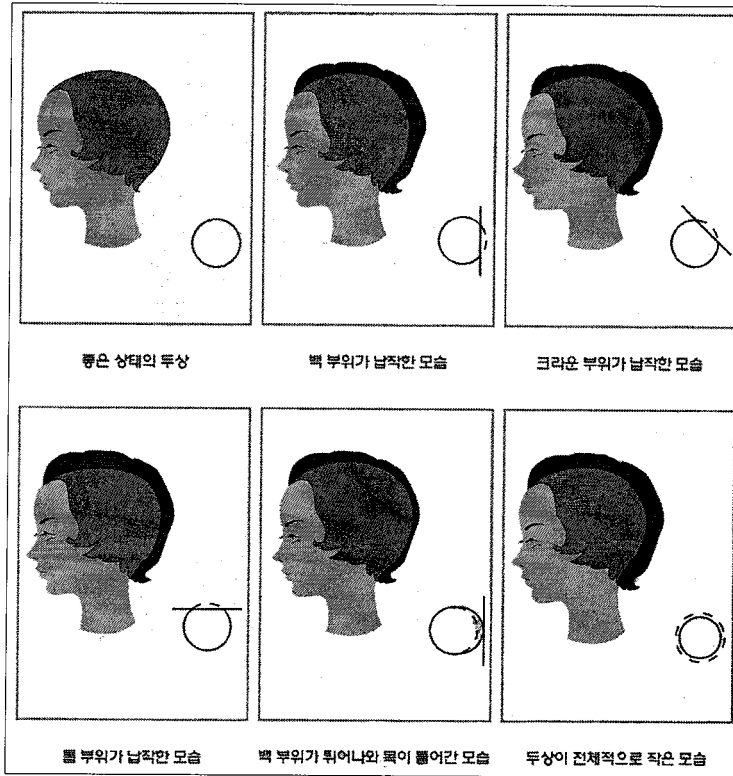
도록 하고 관자놀이 부근에서 모발을 위로 끌어 올려 턱선 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뾰족한 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4-2] 측면에서의 얼굴형

(3) 측면에서 본 두상 윤곽

두상은 일반적으로 동그랗고 일정하게 튀어나온 것이 아름답다, 그러나 사람들 개개인에 따라 일부분이 들어갈 수도 튀어나올 수도 있다. 헤어디자인 시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후두부가 납작하거나 크라운 부분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후두부가 튀어나와 목이 많이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톱 부분이 납작해서 넓어 보이거나 두상이 전체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다.



[그림 4-3] 측면에서의 본 두상 윤곽

2) 얼굴유형과 헤어컷 스타일

Milady는 인간의 얼굴형을 타원형, 원형, 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로 나누고, 이상적 얼굴형을 타원형으로 정하여, 타원형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헤어스타일을 조정하여 단점을 커버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얼굴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얼굴형의 특징과 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연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계란형(Oval Shape Face)

계란형 얼굴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얼굴의 폭보다 길이가 약간 길고 옆

굴 전체에 대한 눈, 코, 입의 균형이 적당한 얼굴형으로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얼굴형을 가진 한국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계란형은 다른 얼굴형을 수정할 때 기준이 되며, 매끄럽게 곡선이 진 턱과 이마, 약간 곡이 진 뺨이 특징이다.

계란형은 어떠한 헤어커트디자인을 해도 잘 어울리므로 개인의 개성과 유행, 그리고 나이와 직업 등에 따른 연출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두상의 골격 구조 즉, 납작하거나 튀어나온 형태 등에 따라 커트라인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두상의 형태가 납작할 경우에는 콘케이브의 라인을 설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콘벡스 라인으로 디자인을 하면 두상의 형태를 이상적인 흐름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원형(Round Shape Face)

얼굴 윤곽이 둥근형으로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주어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는 형이다. 또한 눈, 코, 입 등도 둥글고 목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얼굴이 커서 살이찌어 보인다. 헤어스타일은 얼굴이 길어 보이도록 하고 두정부에 볼륨을 주어 길이를 강조하고 얼굴 옆면의 볼륨을 피하며, 얼굴 양쪽 뺨을 가린 듯한 헤어스타일을 한다.

특히 헤어커트디자인을 할 때는 타원형의 얼굴에 근접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이 때 전체적인 스타일은 클래식하고 모던한 것이 좋다. 앞머리의 라인은 사선을 이용한 착시 효과를 적용하여 탑을 기점으로 모발길이에 단차를 주고 질감처리를 강하게 넣어 볼륨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러한 기법은 얼굴에 길이감을 더하게 한다.

(3) 긴형(Oblong Shape Face)

길고 가늘은 얼굴형으로 고전적이고 지적이며 성숙한 이미지이다. 턱이 길고

뾰족하여 날카로운 이미지로서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옆의 볼륨을 살려 부드러운 얼굴형태가 되도록 하고, 가리마를 하지 않거나 앞머리를 내린다. 중간 길이의 머리가 좋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는 피하는게 좋다.

긴 얼굴에 적합한 커트디자인은 수평라인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때 수평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평느낌을 굵게 해 준다면 전체스타일에서 넓이감이 더해지기도 한다. 특히 모발의 헴(hem)라인을 둥근 U자로 만들어 주는 중간 길이형이나 단발 보스 스타일은 얼굴에 넓이감을 더하여 준다. 롱 헤어스타일일 경우에도 선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주는 것이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각형(Square Shape Face)

사각형의 얼굴은 짧고 넓은 이마, 직선의 뺨, 넓고 각진 턱의 얼굴형이다. 활동적 이미지와 평면적인 느낌과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이미지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강인하고 의지력 있는 여성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사각형의 얼굴에 적용시킬 헤어스타일은 각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카나 스포츠형의 스타일을 피하는 대신, 사선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유도하고 비대칭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앞머리를 내리고 턱 선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끝머리를 가볍게 질감처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롱 헤어스타일인 경우, 둥근라인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시키고, 질감처리를 통하여 울동감을 부여하면 얼굴 형태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브 스타일은 턱 선을 감싸는 형태를 연출해주므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삼각형(Pear Shape Face)

삼각형은 이마가 좁고, 아래가 턱선이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다. 무게 있고 성숙한 이미지이며 턱선이 발달되어 있어 거칠고 고집스런 이미지이다. 따라서 이마가 넓고 턱이 좁아 보이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야 한다. 짧은 머리형이 잘 어울린다. 얼굴이 크지 않으면 볼륨을 많이 주고, 이마의 헤어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윗부분에는 볼륨을 주며, 옆머리로 넓은 턱을 가려준다. 귀 뒤쪽이나 아래 턱쪽에 양감을 주는 머리형태는 피하는 게 좋다.

(6) 역삼각형(Heart Shape Face)

역삼각형은 넓은 이마, 좁은 턱을 가진 얼굴형으로 이마 폭이 넓어 시원하고 보기 좋은 이미지이고 턱이 뾰족하여 날카로운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좁은 턱을 선호하는 현대의 유행에는 적합한 형이다. 헤어스타일은 이마가 좁고, 턱이 넓어 보이게 하고 이마 양쪽 부분을 가볍게 덮어 주고 턱 부분에는 볼륨을 주어 폭을 더해 준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스타일이 어울리며 이마가 완전히 드러나는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컬러의 대비를 이용한 분할로 하악골을 드러내어 얼굴형을 보완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7) 마름모형(Diamond Shape Face)

이마와 턱뼈보다 광대뼈가 돌출 되어 있는 각진 얼굴형이다. 활동적인 이미지이며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어 거칠고 강한 이미지다. 헤어스타일은 광대뼈를 가리고 광대뼈라인이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아래턱과 이마 부분에 볼륨을 주어 살짝 가려준다. 또한 모발의 질감을 가볍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두상에 달라붙은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좋다. 위와 같은 사항을 표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

얼굴형	얼굴형의 특징	헤어스타일	
계란형	이상적인 얼굴형, 다른 모든 얼굴형 의 변형을 위한 기 본형	-모든 헤어스타일에 어울림 -두상의 골격구조에 따라 커트라인 을 다르게 설정	
원형	둥근 헤어라인과 둥근 턱선, 넓은 얼굴	-얼굴이 길어보이도록 하고 두정부 에 볼륨을 주어 길이를 강조-헤어커 트는 계란형의 얼굴에 근접하도록 디 자인 -사선을 이용한 착시 효과적용	
긴형	길고 가는 얼굴형 으로 고전적이고 지적이며 성숙한 이미지	-얼굴이 짧고 넓게 보이도록 앞머리 를 내리고 양옆의 볼륨을 살려 부드 러운 얼굴형태가 되도록 함 -커트디자인은 수평라인을 이용한 착시효과 적용	
사각형	짧고 넓은 이마, 직선의 뺨, 넓고 각진 턱의 얼굴형	-사선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유도 -비대칭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 완화	
삼각형	이마가 좁고, 아래 가 턱선이 발달해 있는 얼굴형	-이마가 넓고 턱이 좁아보이게 헤어 스타일 연출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 윗부분에는 볼륨을 줌	
역삼각형	넓은 이마, 좁은 턱을 가진 얼굴형	-이마가 좁고, 턱이 넓어 보이게 하 고 이마 양쪽 부분을 가볍게 덮어 주 고 턱 부분에는 볼륨을 줌	
마름모형	이마와 턱뼈보다 광대뼈가 돌출 되 어 있는 각진 얼굴 형	-광대뼈를 가리고 광대뼈라인이 부 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아래턱과 이 마 부분에 볼륨을 줌	

2. 얼굴유형과 헤어 커트 스타일의 구성요소와 디자인 효과

헤어스타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실루엣과 얼굴 주변을 감싸는 웨이스 라인(face line)이 있다. 실루엣은 헤어 커트 스타일의 바깥쪽의 형을 담당하고, 웨이스 라인은 헤어 커트 스타일의 안쪽의 형을 담당한다.⁵⁸⁾ 이 두 가지가 두상의 골격이나 눈, 코, 광대뼈, 입, 턱이라는 얼굴을 만드는데 맞춰서 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실루엣을 조절하는 라인을 설정하는 경우는 골격이나 얼굴 중의 포인트가 되는 점을 의식하는 것이 용이 하다.

58) “かたちと 印像” 野道生 (ACQUA) 著 新美容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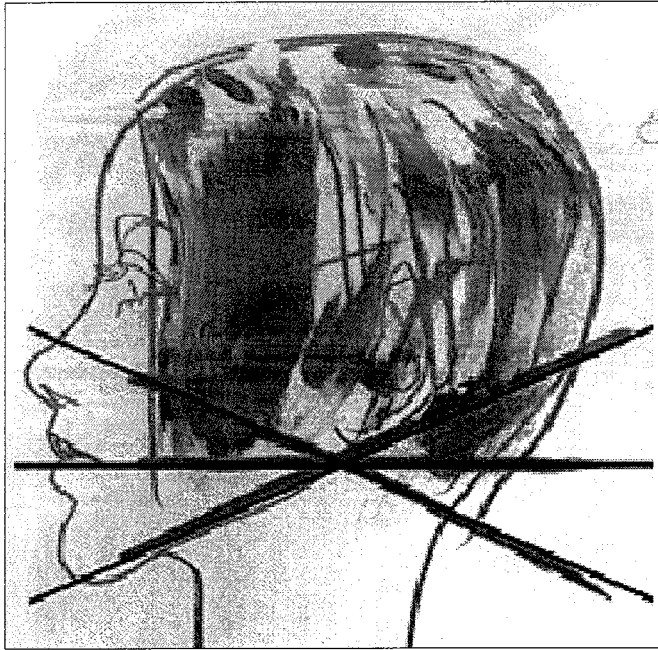
[그림 4-4] 바깥쪽 형과 안쪽 형

1) 커트 라인의 설정과 디자인 효과

헤어 커트의 끝자락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어깨보다 아래에 있는 긴 머리라면 다르지만, 보브⁵⁹⁾ 등은 얼굴 위에 라인을 긋는 것으로, 보여 지는 눈의 인상에 영향을 준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커트라인의 각도(경사)로, 그 각도에 따라 안정감이나 샤프함, 경우에 따라서는 둔한 감의 인상을 준다. 또, 헤어커트 끝자락의 선의 설정은 머리 속에 하나의 구분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얼굴이나 목 등 피부의 부분과 머리형의 부분이라는 두 개의

59) 보브(Bob): 단발 스타일의 일종으로 오개선과 목선이 드리워지면서 짧은 단발 원뿔스가 약간에 층이나 그레쥬에이션 스타일을 일컫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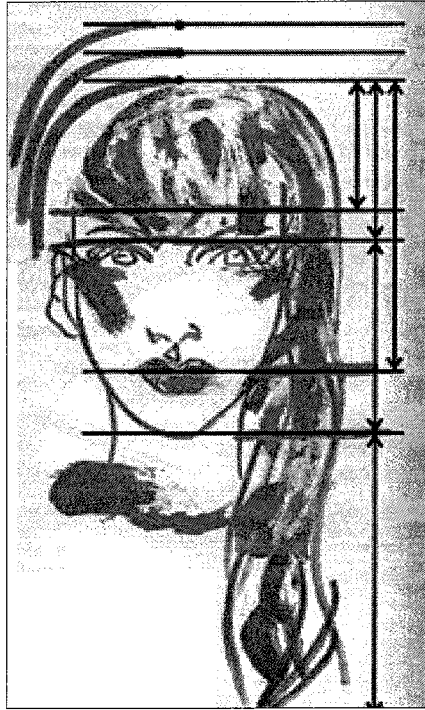
면적이 생겨, 구분의 위치에 따라서 밸런스가 달라진다. 헤어스타일의 선은 인체(人體)의 선(line)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다. 목을 길게 보이고 싶다면, 목선을 분단(分斷)하는 듯한 선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림 4-5]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선의 기준

2) 커트 길이의 결정과 디자인 효과

헤어 커트 스타일의 설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길이”가 생긴다. 그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톱에서 뺑까지, 뺑에서 턱까지, 턱에서 끝자락까지라는 것에 의해 길이의 기준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리는 늘 비교해서 취급되는데, 두개의 길이를 비교한 경우, 한쪽이 길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림 4-6]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길이의 기준

예를 들어 톱(Top)에서 뱅(Bang)까지의 거리가 길면, 뱅에서 턱까지의 거리는 짧게 느껴지게 된다. 또, 그라-보브(Graduation Bob)의 아우트라인(out-line)과 목덜미의 길이라는 것에서 헤어스타일 속에 종(가로)과 횡(세로)의 길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중화되고, 서로의 길이가 눈에 두드러지지 않게 된다.

V.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작품 제작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본 논문을 위한 작품 제작은 지금까지 살펴본 얼굴유형과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실제 모델에 적용시킨 것이다. 연출 시에는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얼굴형의 문제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헤어스타일 연출에 주의를 기울였다.

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술 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술 작업을 하였다. 시술 후 각 모델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작품은 모델의 얼굴형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연구자의 디자인 의지 즉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최대한 적용하고, 피시술자인 모델의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의 유행흐름을 파악하고 작품에 반영하였다.

7가지 얼굴형태별로 총 7명을 통하여 행한 작품제작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얼굴형태에 따른 작품제작

1) 계란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계란형은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세로, 가로 1.5배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스

타일이며, 다른 얼굴형을 수정 할 때 기준이 되는 얼굴형이다. 가장 표준형으로 어떤 스타일이든지 소화해 낼 수 있고, 커트에서부터 긴 머리까지 잘 어울린다.

[그림 5-1]은 계란형 얼굴로 선정된 여자 모델 사진이다. 이 얼굴형은 어떤 디자인을 적용시켜도 어울리므로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긴 머리에 약간의 층만 지게 하였으며, 자연스런 레이어드 스타일로서 부드러운 웨이브로 턱선까지 옆으로 내려 얼굴선을 최대한 살렸다

디자인 요소에서는 곡선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질감 처리로 변화를 주었다.



[그림 5-1] 계란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그림 5-2] 계란형 얼굴의 시술 후(정면)사진



[그림 5-3] 계란형 얼굴의 시술 후(측면)사진

2) 원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원형은 얼굴 윤곽이 둥근형으로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주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 눈, 코, 입 등도 둥글고 목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얼굴이 커서 살이 쪼 보인다.

둥근 얼굴형의 헤어스타일은 수평선보다 수직선이 강조되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얼굴형이 길어보이게 하고 생머리나 긴 머리가 어울린다. 이마를 살짝 드러내야 가름해 보인다.

[그림 5-4]는 원형의 모델로서 얼굴이 넓어 보이고 두상의 흐름이 완만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였다. 탑 부분에 볼륨을 주고, 사이드 파트로 자연스럽게 연출하였으며 턱을 보완해주는 미디움 그레쥬에이션 형태로

턱을 드러내고 웨이브와 컬로 풍성하게 하여 턱을 보완하고 넓은 이마는 앞머리로 커버하였다.

특히 얼굴이 길어 보이도록 하고 두정부에 볼륨을 주어 길이를 강조하고 얼굴 옆면의 볼륨을 피하며, 얼굴 양쪽 뺨을 가린 듯한 스타일을 하였다.

이때 정면에서는 눈과 코 중간 부위까지를 사선으로 연결시켜 스파니엘 형태를 이루게 하였으며, 목선과 가슴선 그리고 머리 끝단까지 층을 둠으로써 변화를 주었고, 즉 디자인 요소에서 선의 원리를 강조하고 원리에서 변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옆면에서 모발 끝 부분의 질감을 통하여 울동 효과를 주게 하였다.



[그림 5-4] 원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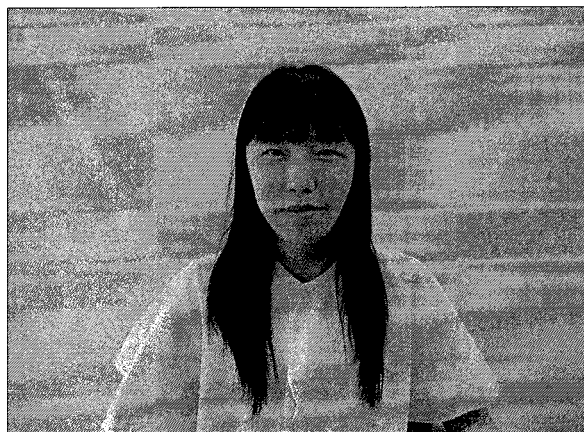
[그림 5-5] 원형 얼굴형의 시술 후 사진(정면) [그림 5-6] 원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3) 긴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얼굴의 특징은 길고 가는 얼굴형으로 고전적이고 지적이며 성숙한 이미지이다. 턱이 길고 뾰족하여 날카로운 이미지이다. 헤어스타일 연출시에는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양 옆의 볼륨을 살려 부드러운 얼굴형태가 되도록 하며, 가리마를 하지 않거나 앞머리를 내리고 중간 길이의 머리가 좋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림 5-7]은 긴형의 얼굴을 가진 모델로서 넓이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긴 머리를 전체 라인이 u자형의 중간 길이 형으로 커트 하였으며, 단발, 보브스타일 얼굴이 둥글게 보이도록 양감을 주었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수평을 강조하였으며 앞머리를 내려서 얼굴이 짧아보이도록 하였다.



[그림 5-7] 긴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그림 5-8] 긴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그림 5-9] 긴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4) 사각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사각형의 얼굴은 광대뼈와 턱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딱딱하고, 남성스런 이미지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 강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의지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각형의 얼굴에 적용시킬 헤어스타일은 각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카나 스포츠형의 스타일을 피하는 대신, 사선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유도하고 비대칭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앞머리를 내리고 턱 선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끝머리를 가볍게 질감처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롱 헤어스타일인 경우, 둥근라인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시키고, 질감처리를 통하여 울동감을 부여하면 얼굴 형태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브 스타일은 턱 선을 감싸는 형태를 연출해주므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10]은 사각형 얼굴에 속하는 모델로서 헤어스타일은 둥근형이나 계란형으로 보이도록 옆면은 볼륨 없이 하고 얼굴을 감싸는 느낌의 그라데이션 형으로 층이 적당히 들어가 턱선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비대칭파트로 굽은 웨이브 형태나 옆면에 자연스런 곡선의 컬로 가로 폭이 좁아 보이게 하였다.



[그림 5-10] 사각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그림 5-11] 사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그림 5-12] 사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5) 삼각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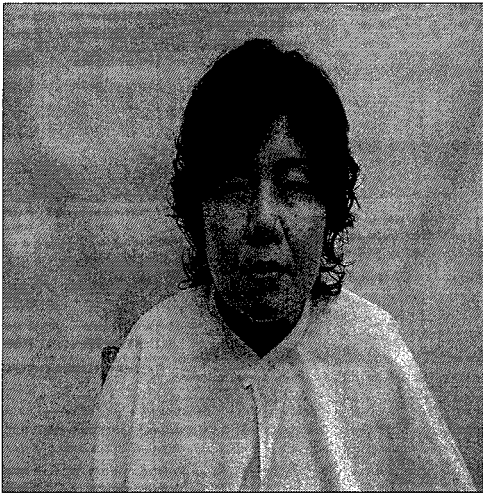
삼각형은 턱에서 머리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얼굴형이며 관자놀이 쪽이 유난히 들어간 사람들의 형태가 많다.

짧은 머리형이 잘 어울린다. 얼굴이 크지 않으면 볼륨을 많이 주고, 이마의 헤어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윗부분에는 볼륨을 주며, 옆머리로 넓은 턱을 가려준다. 귀 뒤쪽이나 아래 턱 쪽에 양감을 주는 머리 형태는 피하는 게 좋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나이보다 성숙해보여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 시선을 얼굴 윗부분에 두도록 톱을 강조하고 웨이브가 잘 어울린다.

[그림 5-13]은 삼각형의 얼굴에 속하는 모델로서 이마가 좁고, 아래가 턱선이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다. 무게 있고 성숙한 이미지이며 턱선이 발달되어 있어 거칠고 고집스런 이미지이다. 따라서 이마가 넓고 턱이 좁아 보이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자연스럽게 레이어드 층을 주어 윗부분에 볼륨을 주었다.



[그림 5-13] 삼각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그림 5-14] 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그림 5-15] 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6) 역삼각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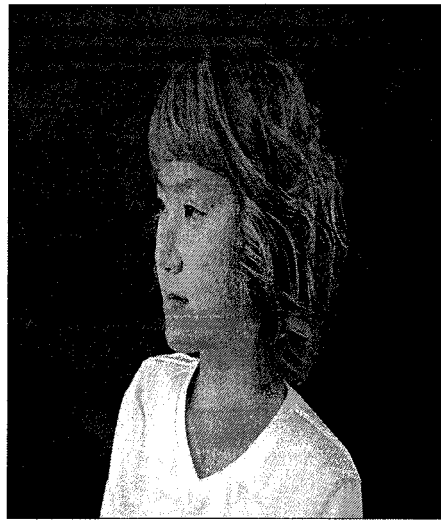
역삼각형은 넓은 이마, 좁은 턱을 가진 얼굴형으로 이마 폭이 넓어 시원하고 보기 좋은 이미지이고 턱이 뾰족하여 날카로운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좁은 턱을 선호하는 현대의 유행에는 적합한 형이다. 헤어스타일은 이마가 좁고, 턱이 넓어 보이게 하고 이마 양쪽 부분을 가볍게 덮어 주고 턱 부분에는 볼륨을 주어 폭을 더해 준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스타일이 어울리며 이마가 완전히 드러나는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컬러의 대비를 이용한 분할로 하악골을 드러내어 얼굴형을 보완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림 5-16]은 역삼각형 얼굴의 모델로서 모든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형으로 이마를 좁게 양 볼의 위 부분을 가능한 붙이고 아랫부분은 양감을 많이 주어 턱 선의 뾰족한 것을 보완하였다. 단발 보브가 어울리고 턱을 감싸지 않고 끝을 가볍게 하며, 뽀치게 하여 턱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림 5-16] 역삼각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그림 5-17] 역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그림 5-18] 역삼각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7) 마름모형 얼굴의 헤어스타일 제작

마름모형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얼굴로 이마나 턱에 비해 양 볼의 광대뼈가 튀어나온 형으로 이마와 턱 부분의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며 앞으로 턱이 조금 나온 형태이다. 이마와 하관이 광대뼈의 폭보다 좁아 보이는 형으로 마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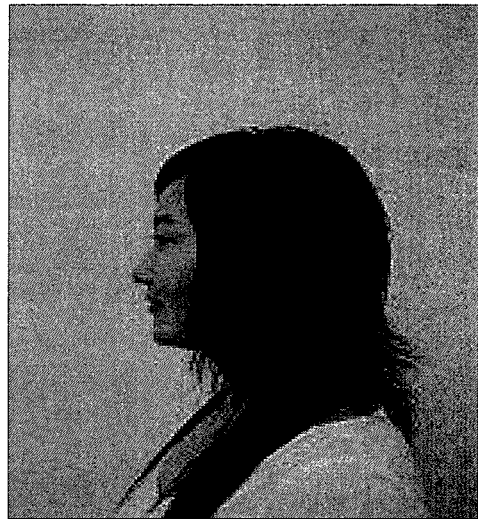
헤어스타일은 광대뼈를 가리고 광대뼈라인이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아래턱과 이마 부분에 볼륨을 주어 살짝 가려준다. 또한 모발의 질감을 가볍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두상에 달라붙은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림 5-19]는 마름모형의 모델로서 헤어스타일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각각 폭넓게 보이게 하였다. 이마를 넓게 보이는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사이드는 부드러운 쉼로 광대뼈를 자연스럽게 감싸주었다.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하며 계란형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 5-19] 마름모형 얼굴의 시술 전 사진



[그림 5-20] 마름모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정면) [그림 5-21] 마름모형 얼굴의 시술 후 사진(측면)

VI.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21세기에 이르면 지금은 시각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중시되어지고,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스타일의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용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하계 또한 최근 몇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어커트 디자인은 구체적인 대상 즉, 사람의 두상과 얼굴 조건이라는 주어진 소재에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가미된 일련의 디자인 과정을 거치며, 이로 인한 결과는 작게는 사람의 얼굴모습을 형성하고 크게는 전체적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다른 분야의 조형 활동과 달리 헤어디자인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디자이너의 손과 창의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헤어커트 스타일을 연출하여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용관련 업계의 디자인 개발 및 판매 촉진에 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련 서적과 논문,

패션전문잡지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얼굴의 조형적 특성 및 얼굴 유형별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동양과 서양의 얼굴유형 분류방법에 대한 고찰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연관성으로 헤어커트 형태 기본요소, 헤어커트 스타일의 분류, 헤어스타일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얼굴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으로 얼굴유형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얼굴유형과 헤어 커트 스타일의 구성요소와 디자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얼굴유형에 어울리는 헤어커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제시결과 현대 헤어 미용이 조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얼굴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디테일한 선의 변화와 질감 등의 적절한 조화는 전체적인 스타일의 이미지와 개성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얼굴의 형태와 두상 골격구조에 따라 디자인 요소의 적용방법이 달라지면 이미지 효과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고, 얼굴의 형태와 두상의 골격구조 이미지 등은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모발이라는 소재에 조형성과 구성미를 지닌 형태적 구성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얼굴형과 두상의 골격구조에 대한 조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디자인 요소 어느 한 가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은 매우 다차원적이다. 헤어스타일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이므로 먼저 각 요소가 형성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자인 구상에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이미지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개개인의 얼굴형과 두상의 골격구조는 선천적인 외모조건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잘 활용시킨다면 외모가 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해진 헤어스타일은 없고, 어떤 헤어스타일이든지 자신의 얼굴형에 어울리도록 조정만 한다면 과감히 자기 변신을 시도해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타패션감각에서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무척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얼굴유형 분류를 동양철학적 관점과 서양의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와, 직접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제작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얼굴유형은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관상학적인 삼형질론과 우리나라의 체형인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기운이 적용된 다섯 가지 얼굴형에 효과적인 헤어스타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형 얼굴은 언굴 전체를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얼굴의 둥근형을 강조해버리면 개성적으로 보이고 쇼 커트에 부드러운 쉼이 있으면 귀엽게 보인다. 따라서 헤어커트를 할 때는 타원형의 얼굴에 근접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이때 전체적인 스타일은 클래식하고 현대적인 것이 좋다. 앞머리의 라인을 사선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하여 턱을 기점으로 모발길이에 단차를 주고 질감을 강하게 넣어 볼륨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란형 얼굴은 같은 계란형이라도 이목구비의 차이와 턱이 가늘다거나 이마를 드러내고 있다든지 각각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그것을 살려서 모발의 길이와 디자인을 생각하고 매력의 포인트를 주어 신선함을 주도록 한다.

역삼각형 얼굴은 이마를 감출 수 있는 길이를 선택하고 질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컬러의 대비를 이용한 분할로 하악골을 드러내어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얼굴형이 명확히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은 금물인데 헤어스타일의 포인트는 턱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쉼과 웨이브로 부드러움을 더하도록 한다.

사각형 얼굴은 각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카 스포츠형의 스타일을 피하는 대신, 사선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유도하고 비대칭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머리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안쪽 말리로 하여 사이드에 양감을 내주지 말고 턱을 싸잡아 주듯 꾸민다. 바깥쪽으로 빠치면 각진 것이 강조되므로 주의한다.

긴 얼굴은 비교적 얼굴윤곽이 예쁜 편이나 다소 지루해 보이는 인상으로 볼 쪽으로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가로선이 강조되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긴 얼굴형에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은 단발형으로 앞머리를 잘라서 내려주면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헤어스타일이 얼굴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함으로써 신체적 외모에서 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방향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컷 제작 시 모델의 얼굴형을 선택할 때 문헌연구에서 고찰한 서양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방법을 통한 얼굴 유형을 분류하지 못하고 동양의 관상학에 근접한 얼굴 유형 분류 방법을 택하여 본 연구자가 임의대로 모델의 얼굴 유형을 선별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각 얼굴유형별로 1명의 모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얼굴 피부색이나 기본적인 얼굴이미지나 형태가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헤어스타일 연출시 얼굴유형 외에 연령대, 직업, 상황, 테마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과 이미지 및 형태, 질감, 색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헤어패션 감각을 살리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헤어디자이너들과 사회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민 민속 박물관(1991). 『한국인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신유.
-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2004), 헤어컷 디자인, 청구문화사.
- 권상구(2002), 기초디자인, 미진사.
- 김경순(1996), Make up, 서울 : 청구문화사.
- 김민자(2004), 복식미 엮보기-복식미학 강의 2, 교문사.
- 김성현(1995),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 김인해(2003), 디자인 발상, 미진사.
- 백세민(1993), 미용성형외과학, 서울:군자출판사.
- 신기원(2000), 내관상 내가 본다, 한세.
- 신지현(1999), 신 미용학개론, 서울 : 수문사.
- 양두병(2000), 미용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 서울 : 명상.
- 이은영(2003), 복식디자인론, 교문사.
- 이혜성(2003),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 현문사.
- 조용진(1989), 우리몸과 미술문화, 미술교육사.

학위논문

고충환(1997),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2004), 남자대학생의 얼굴계측에 따른 유형별 헤어 컷 디자인 연구, 동명정보대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숙(2003), 여대생 얼굴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필례(2004).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희(2002), 인상과 관련한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경(2006). 헤이스타일 연출에 관한 연구-수도권 20대 여성의 얼굴형과 헤어패션 감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혜정(2005), 얼굴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경연(2002), 헤어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헤어컷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간행물

- 김애경, 이경희(2005),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권 제6호, p. 651.
- 박철규, 이의태, 이재성(1998), 젊은 한국 여성의 중하안면 형태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5(1).
- 송미영, 박옥연(2004), 20대 여성의 얼굴유형 분류 및 형태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1).
- 양숙희, 남철현, 김성우, 곽형심, 남현주, 이명옥(2001),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 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6.
- 이승철, 김부여, 황라일, 강소라, 이지혁, 박홍식(2004), 균형 및 비례 측정법을 이용한 정면 사진 분석,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10(2), pp.72-78.
- 정경민, 김종환, 홍인표, 김현철(2003), 안면윤곽수술 15년의 임상경험,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4(5), p.610.

외국문헌

- Davis, Marian L.(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pp.83-86.
- Hassin, R. & Trope, Y.(2000). Fashion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Tate, Sharon L.,(1991), Fashion Handbook, N, Y : Herper Collins Pub.
Westmore, Buddy(1930), The Westmore Beauty Book, N, Y : Westmore
Co.

CORLOR DESIGN, Hong Kong :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2001.

HAIR SCULPTURE LADIES, Hong Kong :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1994.

“かたちと 印像” 野道生 (ACQUA) 著 新美容出版社
신미용출판사 “新美容 12月号”.

기타

www.kamata-juku.co.jp

<http://Firstview.com>

<http://www.style.com>

ABSTRACT

A Stud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air Styles depending on Facial Types - Focused on Hair Cut Styles -

Kim, Hye Young

Major in Hair Design

Departmen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facial types and hair styles and thereupon, provide for the data useful to development of hair cut styles conducive to hair style designs as well as development of designs and promotion of sales by beauty business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books, dissertations, fashion special magazines and other relevant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about facial types and hair styles and thereupon, suggested some hair cut desig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ggesting the hair styles for each facial type,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rn hair beauty can be realized in terms of

formative aesthetics, and that detailed linear changes and harmonic textures expressed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aces are important for expression of an entire style image and original beauty.

Second, if design element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facial shapes and head skeletal structures, images would be able to be effected in diverse ways, because facial shapes and head skeletal structures play important roles in determining the hair styles.

Third, since the most basic elements affecting the hair style images are such design elements as form, color tone and texture, effective images could be created i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s created by such elements should be understood enough to be reflected in design ideas.

Fourth, if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should be well applied under individuals' conditions, the handicaps of the look would be surmounted.

Fifth,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the facial typ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Oriental philosophy and according to the scientific approach and as a result of designing the hair styles depending on facial type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facial types of the Korean people may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5 categories;

For the round facial type, the hairs should be designed and cut as if the face were oval. Here, the entire style needs to look classical and modern. The front hair line needs to be voluminous with different hair lengths centered about the top and a strong sense of texture, taking

advantage of the optical illusion effects.

For the egg-like facial type, some attractive points need to be set in consideration of hair length and design to look fresh.

For the inverted triangular facial type, it is better to select the hair lengths concealing the forehead and reduce the sense of texture. In addition, it will be effective to divide the face using the color contrast and thereby, reveal the lower jaw to complement the facial type.

For the rectangular facial type, short or sports hair style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 angles are revealed, and instead, an optical illusion needs to be induced by using the oblique lines, while the asymmetric lines may well be emphasized to relieve the angled shape.

The safest and most ideal hair style for the long facial type may be a short hair style. If the front hairs should be cut to be lowered, a pretty image would be rendered.

As discussed above, the researcher could obtain some basic data about the visual effects of the look by appropriately harmonizing the hair styles with the facial types.